

학생 돌봄 복지사, 정작 고교엔 없다

대구 교육복지사 인력 총원 지급

전국 시도 중 배치율 높지만
 과중한 업무, 연속성 떨어져
 중학교서 고교 진학시켜도
 적응 못하고 다시 자퇴 위기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정서적·경제적 위기 학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학급 학생 모두를 보살피는 담임교사는 취약 계층 학생의 복지에만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복지 전문가인 교육복지사는 전담 관리가 가능하다. 교육복지사는 사례 발굴과 상담, 학교생활 적응, 복지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초등학교에선 상담복지사라고 부른다.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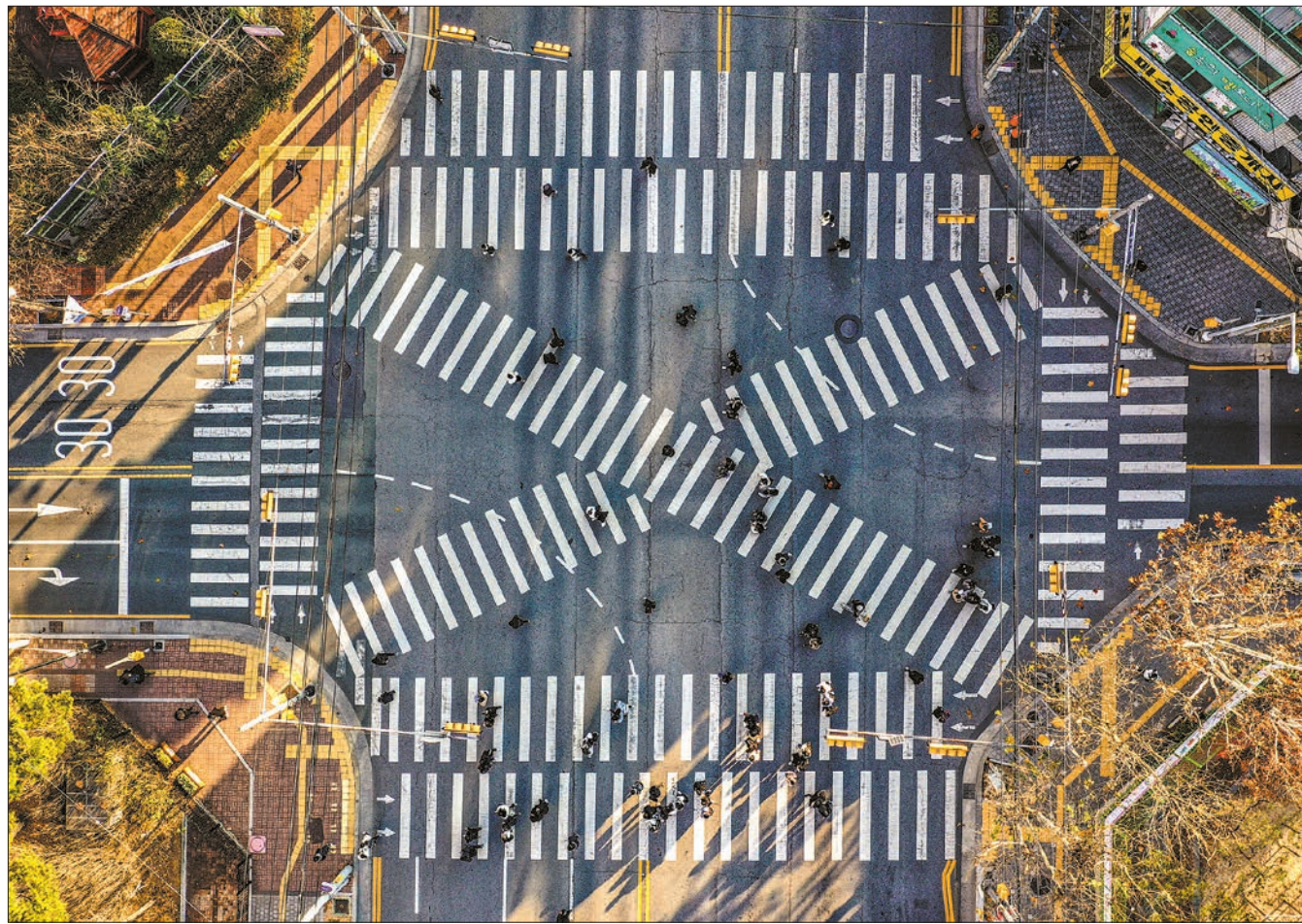
교육복지사들은 위기 학생 관리가 어렵지만 보람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인력 총원 등 내실화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 중 대구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높은 편이지만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아직 고등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13년간 대구에서 교육복지사로 활동한 A씨는 12년 전쯤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이 잦았던 한 청소년을 맡았다. 당시 학생의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근무해 학생이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A씨는 집으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고, 결석할 땐 꾸준한 가정방문하며 복학을 도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생은 결국 자퇴했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과 연락을 놓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방황하던 학생이 최근엔 가정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다.

A씨는 “당시 학생이 자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 돌보는 데 결국 실패했다’는 낙담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데 방황하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 학생도 주변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최근까지도 그 학생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 ‘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방황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라고 했다. 2면에서 계속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X자 횡단보도’ 대구에만 51호 돌파 대구에 도로를 ‘X’자로 건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동일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학생들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다”며 “2000년 수성구 신매초교 앞 네거리에 제1호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며, 최근에는 시지초교 네거리 앞 제51호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안성원 기자 asw0727@imaeil.com

‘쿠팡 대구센터’ 소방필증 퇴짜 맞았다

대구국가산단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쿠팡 대구첨단물류센터(이하 대구센터)가 준공 전 소방안전시설 검증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소방 관련 미비한 점이 드러나 올해 안에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달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센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하 완공필증) 신청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했고, 지난 3일 소방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 명령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완공필증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한 뒤 발급한다. 달성소방서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완공필증을 받아야 담당 구·군청에서 전기·건축 등 전 분야에 대한 확인 작업이 가능하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사용 승인이 난다. 앞서 지난달 18일 소방심의위원들은

달성소방서, 일부 시설 보완 명령 규모 크고 기준 엄격해 협의 난항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대구센터가 지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평가를 벌였다. 성능위주설계는 대규모 건물의 재난안전성 확보 기준을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것보다 더 높은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 전문가와 소방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9명은 지난 2019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성능위주설계 작업을 했다. 즉, 대구센터가 어떤 화재안전성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현장 확인에서 일부 미비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소방서가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필증이 나가고, 아니면 보완 명령이 나가

는데, 달성소방서가 대구센터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을 지적하며 반려했던 것이다.

대구센터의 경우 규모가 크고 기준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건설사 및 쿠팡측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지만 당초 예정대로 연내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0월 말 준공 예정이었던 대구센터는 연면적 약 33만㎡에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초대형 물류창고로 국내 최대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다.

달성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마다 다르지만 대구센터는 규모가 워낙 크고 대중적인 관심도도 높아 필증 관련 기준이 높고, 협의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4천70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자수 기자 index@imaeil.com

“물 떠오라” 쌍욕에 뒷담화 어르신 세상 ‘경로당 왕따’

일부 회원 세력화해 시설 독점
 상주 관리자 없어 예방 어려워
 상담 인력 보충·예산 확대 절실

대구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A(81)씨는 귀가 어두워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경로당 회비 내는 날짜를 A씨에게만 알리지 않은 뒤 “회비를 빨리 안 낸다”며 욕을 하고, 행사 등의 사 결정을 할 때도 A씨 의견은 묻지 않는다. A씨는 다른 회원들이 모여 웃고 대화할 때마다 자신을 비롯한 것처럼 느껴져 움츠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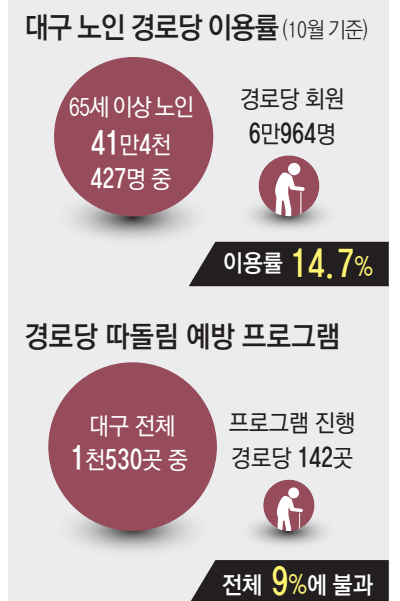
지난 2019년부터 대구 서구 한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기존 회원들의 뒷세로 경로당을 나왔다 B(77)씨. 기존 회원들은 B씨를 포함해 신입 회원들에게 쌀쌀하게 대했고, 몸이 불편한 회원에 대한 뒷담화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물을 떠오거나 혼자 설거지를 하는 등 기존 회원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결국 지난해 초부터 경로당에 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좁기는 해도 가시방석 깔린 경로당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서다.

경로당에서 따돌림과 뒷세로 갈등을 빚어 추운 겨울에 공원이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인이 많다. 경로당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0월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 41만4천427명 중 경로당 회원은 6만964명으로, 대구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14.7%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로당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따돌림과 뒷세다. 경로당은 한 방에 모이는 구조여서 이런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한노인회 구·군별 지회가 경로당 관리를 맡고 있지만, 상주 관리자가 없어 이를 막기도 쉽지 않다.

박창제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교적 나이가 적은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자기 편이 없는 노인은 약자가 된다”며 “서열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해 약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뒷세가 문제라는 인식이 낮다. 결국 일부 회원만 경로당을 독점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따돌림과 뒷세 예방 프로그램이 있지만 열악하다. 대구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 한 곳뿐이다. 상담소는 2012년부터 대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노인 집단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는데, 프로그램은 진행한 경로당은 142곳으로, 전체 1천530곳 중 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다. 지난해는 아예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지난 7, 8월 실시했으나 이후 다시 중단됐다.

강남미 대구 중구노인상담소장은 “2007년 상담소가 생긴 이래로 직원 은 늘 3명에 불과하다. 더 많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상담소 인력 보충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오후 9시 5,704명 확진 중간 집계 ‘역대 최다’ ▶8면

새바람 행복 경북! **LOVEBOOK Sale FESTA**

2021 경북세일페스타 송년 BIG 세일

12월 한 달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 감사한 분들께 경상북도가 드리는 선물!

온라인별 할인율

- LOTTE ON 30%
- SSG.COM 20%
- 위메프 15%
- 우체국쇼핑 10%
- TMON 30%
- MARKET Kurly 20% (*최대 1만원)
- coupang 10%
- 김영사 5%

4년째 걸도는 성주 사드 보상 김부겸 “SOC보다 주민 우선”

기자간담회서 적극적 지원 의지

사안 중요성 공감...협력 당부
소성리 피해민 설득 방안 약속
홍남기 부총리도 특혜 의혹엔
“자식 입원했는데 그럴 수 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성주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민관지원협의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의 중요성을 성주 주민뿐만 아니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돼 지역 주민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길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정부는 자금이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라고 적극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의 언급에 비춰 SOC 건설에 앞서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 직접 피해를 본 소성리 등 사드기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다만 주민들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불차 반입을 막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아닌 것 같다”며 “주민 대표들께서 선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정부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4년째 걸두고 있는 사드 지원사업 가운데 ‘6개 우선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휴(休)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한편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판단해 바로 결심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 정부 공공기관 중 금융은 어디에 모아야 시너지가 크겠다. 이런 정보는 준비해 놓겠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일각의 불안감과 관련, “다른 여러 방역 정책도 같이 하지만, 백신만큼은 다른 나라도 예외 없이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나”라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일부 장관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조기 사퇴설에 대해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인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선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maeil.com

○학생 복지사 1면서 계속

다른 교육복지사 B씨는 불안정한 한 초등학교의 가정환경을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다. 학교에서도 무작정 때를 쓰면서 적응하지 못했다.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인근 유치원 원장에게 양육비 일부를 주고 아이를 맡겼다. 육아에 거의 손을 놓았던 것이다. B씨는 학생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대학생 멘토와 경제적 지원 연계 방법을 찾아 가정 회복에도 힘썼다. 다행히 매일 때만 쓰던 학생의 표정은 웃는 모습으로 바뀌고 악취도 사라졌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학교생활에도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 주석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회장은 “학교 폭력, 학교 부작용, 정신건강 문제 등 요즘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를 교사 혼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한다. 법제화를 통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1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진전문대, 칠곡에 재활전문병원 세우나

지천면 글로벌캠퍼스 설립 검토
경북도·칠곡군 “문제없다” 답변

영진전문대학교가 경북 칠곡군에 대학 부속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대구 본교에 있는 간호학과(4년제)를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제2캠퍼스(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는 계획과 연계해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에서 전문대학이 부속병원을 설립·운영 중인 곳은 대구보건대뿐이다. 대학 부속병원 설립과 관련해 영진전문대는 최근 경상북도와 칠곡군에 설립 자격 등을 타진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속병원 성격이나 규모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 또는 노인요양병원 정도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에 대해 칠곡군과 군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대학이 제공



영진전문대 글로벌캠퍼스 전경.

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부디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영진전문대 측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차원에서 간호학과 이전안과 병원 설립안이 나왔다. 두 가지 안 모두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접종이나 교육이나,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엄마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카운터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美,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고민 빠진 정부

인권 탄압 내세우며 공식화
동맹·우방국에 가이드라인 역할
韓, 국제사회 결정 주시하며 검토
中 “결연한 반격 조치할 것” 반발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역시 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이유로 중국의 인권탄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심화하는 미중의 ‘가치 갈등’ 구도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쟈 스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新疆)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학살(genocide)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힌 지 18일 만에 공식 결정을 밝힌 것이다. 일단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다. 스키 대변인은 동맹국들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시키려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 둘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리더 격인 미국의 입장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게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스키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적·공식적 대표단을 보낸다면 중국의 지독한 인권침해, 신장에서의 잔혹 행위 앞에서 이번 올림픽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는 격이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의 이런 기조는 평창에서 도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3국의 ‘릴레이’ 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러질지 바란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다소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를 주시하면서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대표단 파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중국 측에 체육 관련 주무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이미 제출했는

데, 다시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서방의 견제 구도 완화와 지지 확보를 위해 ‘악한 고리’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주중대사와 잇달아 회동하고, 중국 매체가 한국 측의 베이징 올림픽 지지 발언을 부각한 것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만큼 종전선언 등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 진전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이인영 통일부장관)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추진에 다소 거리를 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에 엄정한 교섭(협)을 제기했고,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혁명당 ‘33정책’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1.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1억 원 지급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2.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지급 시작)
3. 결혼시 3억 원 지급[결혼자금 1억+주택자금 2억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4.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 (")
5. 육아수당 (유아 1인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
6. 3종 무료카드 지급(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안경 무료제공 카드/청소년 안심식사 카드) (")
7. 1억 미만 소액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8.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단체장 선거 폐지
9.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으로 대학 결정)
10.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국민배당금 재원마련 방법

1. 국가예산 70%절약으로 400조 마련
2. 36가지 세금 통합으로 100조 마련
3. 재산비례 벌금제로 100조 마련
4.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100조 마련
5.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6. 양적완화로 코로나 긴급자금 마련

국가혁명당

02-783-8011~5

사례 발굴·상담·기관 연계...한 학교를 나홀로 관리

인력 부족·스트레스 한계 수준

한 학교에 1명 배치 '업무 과중' 가정사 관련 의사결정 부담도

미배치 학교에선 담임이 전담 업무 많아 세심한 관리 못해

고교엔 배치 안돼 연속성 저하 학생들 진학 후 다시 문제 겪어

교육복지사의 위기 학생 관리 업무 이면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찮다.

대구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교육복지사 인력은 부족해 각종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1명씩 배치된다. 홀로 학교 내 모든 위기 학생을 도맡아야 한다. 학교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임교사와 협의해 사례관리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 보니 업무 과중은 물론 의사결정에 있어 부담감이 상당하다. 아동학대의심 가정의 경우 부모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거나, 상담 거부 등 아예 가정에 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대구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D씨는 "학생 관리를 위해 교장과 교감 등과 협조를 하지만 혼자서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많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며 결정을 내리지만 힘들 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속앓이를 한다"고 했다.

담임교사와의 업무 협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사의 경우 학생 관리 등

처리해야 할 기존 업무가 많아 복지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교육복지사와의 소통·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담임교사가 복지 업무까지 전담하는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는 위기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배치 학교의 지원을 돕는 교육복지사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있지만 5명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측이 우선 지원을 요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해 신속한 업무 처리도 힘든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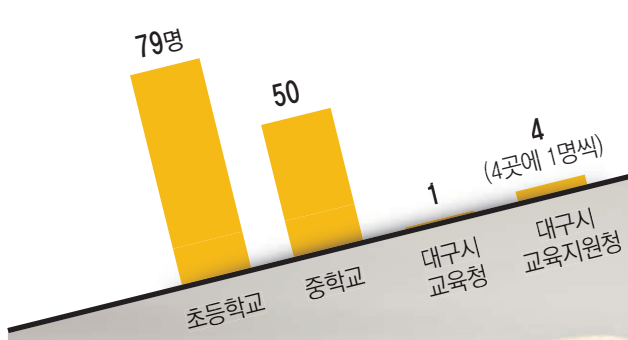
무엇보다 교육복지사들은 학생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이 방치되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한 교육복지사는 "중학생 때 관리하던 비행 청소년을 겨우 설득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돌봐주는 인력이 없어 자퇴했다"며 "위기 학생은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고등학교에도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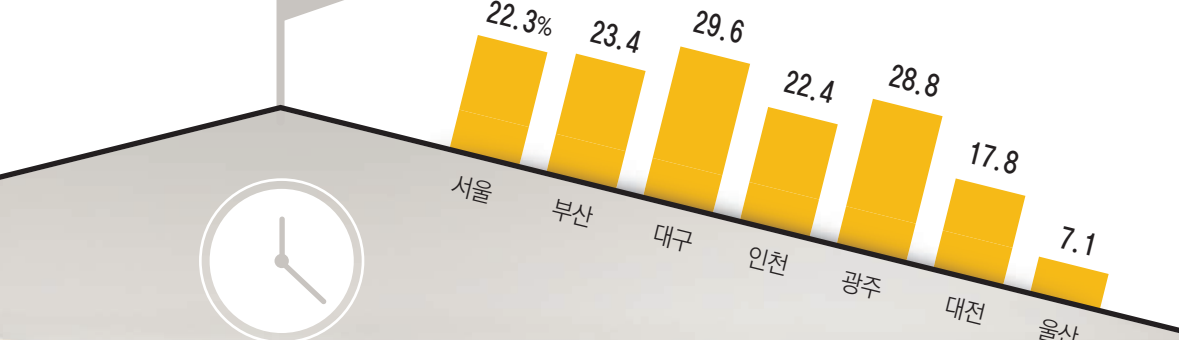
다른 교육복지사 E씨는 취약계층이었던 한 학생 가정의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직접 받으러 다녔다. 서류 첨부와 법원 재판 등을 돕기도 했다. 이후 구청을 통해 학생 가정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의 보람과 기쁨이 힘을 낼 수 있게 했다.

E씨는 "교육복지사로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힘이

대구지역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상담복지사' 명칭 사용 (자료: 대구시교육청)



특별·광역시 교육복지사 배치비율 (2021년 기준)
지역 전체 학교 수 대비 교육복지사가 활동하는 학교 비율 (자료: 대구시교육청,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들지만 일에 대한 보람이 크다. 간혹 한 학생에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담임교사는 학급 전체를 돌봐야 하니 어렵다"며 "바로 이런 역할을 교육복지사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력도 부족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maeil.com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예산 확보와 함께 학교 내 배척현상도 해소돼야”

전문가들 '교육복지사 충원' 강조
“교사 혼자서 아이들 문제 못 다뤄
인성 교육·복지 등 함께 움직여야”

최근 학교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건강상 도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이들을 도울 교육복지사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복지사에 대한 학교내 배척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석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회장은 “교육복지사가 교사들과 함께 위기 학생을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선 교사가 혼자서 아이들 사례를 관리하면서 계속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데 쉽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학회장은 “학교는 교사 역할이 큰 현장이다 보니 교육복지사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어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데,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은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서구 10대 형제의 할머니 살인 사건

을 보면, 형제가 중학교에선 교육복지사 관리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단절됐다.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구할 방법이 현재 시스템 안에서 끊어진 것”이라며 “학생 인성 교육과 복지 측면은 교육복지사가 맡아서 전문성을 키우고 인력 충원을 통해 교육복지사의 처우 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복지사 관련 업무가 각각 생활문화과와 교육복지과로 나뉘어져 있다. 학생에 대한 통합 관리와 업무 연속성을 위해선 조직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윤정훈 기자

대구 인력 배치율은 높지만 업무 과중은 여전

교육복지사 총 134명 활동 29.6%
초·중학교 353곳 관리엔 어려움
대구교육청 “내년부터 인력 충원”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대구의 교육복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비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학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복지사 인력 확충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초등학교 79명과 중학교 50명, 교육청 1명, 교육지원청 4명 등 모두 134명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우선 배치했다. 교육지원청 인력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복지사는 사례 발굴과 상담, 학교 생활 적응, 복지기관 연계 등 학교 내 위기 학생의 복지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담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대구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높은 편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2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28.8%)와 부산(23.4%), 인천(22.4%), 서울(22.3%), 대전(17.8%) 등의 순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의 모든 초·중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높은 배치율에도 교육복지사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복지사 134명이 대구 초등학교(국·사립 제외)와 중학교 등 353곳을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4명 충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업무(1명)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사고 발생 후 열렸던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학부모 교육, 인성교육 등 과별로 분산된 일을 통합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윤정훈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www.sulwhasoo.com
* Customer Care Center 080-023-5454
**탄력인 인삼 사보닌(CK)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적용 실험 결과(4주 후 측정 결과) (대상: 30~60세, 31명) | 시험기관: 허연씨(피부)연구소(허연씨) |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

文정부와 거리두는 李... ‘사실상 정권교체’ 논리 꺼내

이재명 “주택 공급량 늘려야 국가 빛 무조건 나쁜 건 아냐”

文대통령 지지율 높아 부담 與 핵심 지지층 이탈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 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정권 교체’라는 논리로 맞선다는 전략이지만, 득실을 두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라지다 간담회’에서 현 정권의 아키텍스적인 부동산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후보는 코로나19 시기 현 정권의 소극적인 소상공인 지원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에선 “국가의 빛이나 개인의 빛이나 빛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빛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빛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빛은 좋은 빛”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현 정권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쪼꼬리’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뿐 아니라 청와대 출신 인사들까지 차별화를 거두고 나섰다. 이 후보의 정부실장이자 현 정권 첫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을 하는 게 맞다”며 “문재인 정부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현 정권과 분명히 선을 긋는 배경에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분석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권 재창출론으로 맞서기 보다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외연 확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핵심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비판적 역할의 ‘레드팀’을 이끄는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 “솔직히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 말임에도) 정말 미래적으로 높다. 엄청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심상정 ‘민생 탐방’ 안철수 ‘원전 추진’ 김동연 ‘AI 대변인’

제3지대 대선주자들 강점 내세워

이른바 ‘제3지대’ 대선주자들은 7일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세 확산을 시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버스를 타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심상정은 버스 6411’ 출정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6411번 버스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상징으로, 당이 추구하는 노동권 존중 사회를 대표하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심 후보는 충남 태안을 찾아 고(故)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공계 출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세계적 추세 또한 원전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조정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 △신한을 3·4분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진행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인재 영입 1호’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자신의 아바타 ‘윈디’(windy)를 공개했다. 그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형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선거운동 대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아바타는 앞으로 제가 가진 철학과 비전, 정책의 내용을 전부 학습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尹,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은 위험 소지”

이재명, 서울대서 경제 강연

“낮은 이자율 대출 청년 혜택볼 것 저출산 해결 핵심은 성장의 회복 박근혜 존경 발언 논란 맥락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대를 찾아 2030세대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자로 나와 청년 관련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 “상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은 50만원도 빌리기 어려워 사채를 쓴다. 몇 달이 지나면 빚이 300만원이 되고, 1년이 지나면 2천만원이 돼 있다”며 “대개 피해자는 여러번 토래의 청

년”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며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이라며 “65세 이상에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아니면 남녀 성평등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하나. 출산, 육아, 보육,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출산 회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게 본질적인 대책은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적 원인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며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야 하고, 그 핵심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저임금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실수한 것 같다”며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전혀 아니다”라며 “말이란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인데, 맥락을 무시한 것은 진짜 문제”라고 했다.

김병훈 기자

文대통령, 12일 호주 국빈 방문...13일 정상회담

탄소중립·방산 등 양국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3박4일간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호주 수도 캔버라로 출국해 이튿날인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호주 양국 간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 일정도 소화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원자재 및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찬도 가질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호주가 방역에 매우 엄격한 국가이고, 오미크론도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초청했다”며 “2020년 3월 호주 국경봉쇄 이후 호주 정부의 첫 외국 정상 초청이란 점은 우리가 호주에 그만큼 중요한 상대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다음에서 '온심마켓'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를 검색하세요!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온심마켓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국힘 중앙선대위 첫 회의 개최
“전국 각지 조직 단합력 중요”
의원 선거구 당협 역할 강조
여당은 ‘포퓰리즘’ 실제 비난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선대위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라고 붙이고, 승리를 위한 조직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중앙선대위는 선거운동 전략과 기획을 통해 전국에 각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이끄는 것”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이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된다. 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는 정말 ‘고향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당이 더욱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 차기 정부를 맡았을 때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당원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 선거운동 조직의 분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선 이후 지방선거, 총선 준비태세를 갖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 후보는 또 전날 출범식에서 연설을 한 청년층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청년을 국정 동반자로 선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지 취약층인 2030세대 공약의 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 윤 후보,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항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출범식에서 찬조 연설한 김민규, 백지원 씨와 관련해 “윤 후보가 본인의 모든 메시지를 청년의 눈으로 게이트키퍼 하도록 후보 메시지에서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와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 앞서 진행된 선대위 제막식에 참석해 ‘네이밍’ 발표 퍼포먼스를 갖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

였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명칭에 대해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마가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정의, 국민의 삶을 되살리자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김중민 위원장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윤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가주의, 대중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의 실체를 드러내고, 국민을 살리는 대안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려면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거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고 자신했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이준석 대표 2030 보듬으며 尹 후보 보완재 역할에 충실”

조영환 국힘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金 위원장 공약·메시지 던지고
尹-李, 원팀으로 전국 누빌 것”



국 국방공약을 누비면서 국민의힘은 ‘하 나된 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실장은 이 대표와 윤 후보 간 신 경전이 절정으로 치

달았던 이달 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침하면 내용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 수 있는 순간에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해 가는 이 대표를 보면서 당원들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 대표의 약점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현안에 골목하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관계’와 ‘사람’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부실장은 2018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9월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 지난해 총선, 올해 6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업무를 주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대표의 정치 행보 전반을 뒷바라지해 온 셈이다. 경북 김천 출신인 그는 자신이 이 대표를 보좌하는 동안에는 대구경북과 이 대표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류광준 기자 june@maeil.com

금태섭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정희용 상황2실장

국힘 선대위 인선 추가 발표
김중민 위원장 장악력 커질 듯
백신 부작용 관련 공약 발표도
尹 “국민 안전보호가 국가 임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한다. 금 전 의원과 함께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꼽히는 정태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정부대응실장에 임명돼 김 위원장의 선대위 장악

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마친 뒤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종합상황실장에는 이철규 의원, 상황1실장에는 오신환 전 의원, 상황2실장에는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각각 임명됐다. 3선 의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특보단장도 구성된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며 사망자에게는 선 보상 후 정산하도록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선 치료 후 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번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첫 외부 일정도 서울 서브스마일센터 방문으로 시



금태섭 전 의원 정희용 의원

작했다. 그는 이날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센터인 서울서브스마일센터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예방이 첫 번째고,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치료를 통해 재활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호남 무소속 재선 이용호, 국힘 전격 입당

“지역갈등 완화, 국민통합 먼저”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안배를 받아 입당원서를 냈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거취를 놓고 긴 시간 숙고를 했는데 두 갈래 길에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하지만 옳은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윤 후보를 믿고 윤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이 더욱 더 국민을 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의원 합류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친군인 마(를) 얻은 것 같다” 화답했다. 김중민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해 노력을 해서 호남지역 득표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윤 후보와 조찬 회동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은 105석이 됐다.

부동산

상가

사무실

부동산합동사무실

200/22(시·관·관리포함) 010)3200)3069
No. 27-2014-00079 달서구 분당 개업금인중개사공동사무소

일반상가

달구벌대로 역세권 2층상가
분양529㎡전용291㎡매9억
8천만 병원·학원최적지(010)2514)2388
No. 7-17-3665 달서구 현진공원 현상적

매매·임대 (구)창녕우체국
1층상가 2층주거
대150 주민상당 010)2066)5110

병원최적 대형주차 대로코너
수성구 대1851㎡
건4700㎡매165억 010)3501)1477

급매 사정상급매 분양525 전용336
보4억 1800만 인수9억9천
대형마트성업중 용허 010)6624)4580

유통단지 상가180㎡용3억5천
보5천 250만
엑스코앞 인수가3억6천(010)7190)2356

사옥·교회부지 통상가
북구연경
동 대200 건300 주민적(010)6727)3330

병원 요지 391.7㎡매매36억
병원·동물병원·학원
·식당까지 앞산네거리(010)4643)6770
No. 27200-2021-00065 남구 서현공원 류길하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달구벌대로 990㎡·1600㎡
병원·상가·다용도부지 010)9359)6989

카페 매매(매건카페·피자·경양식)
보2천 권리금8천 월세1백/전
세가능 보증금8천 월월 010)9294)9006

모텔/목욕탕 부지 급매 최상급 서구
전면35㎡후면20㎡집1155㎡
명도3, 3.3㎡당1600만 010)8420)1755
No. 27170-2020-00012 서구 누리동부동산 안현석

이시아 플리스 내 모텔부지
공동사업 도시철도
엑스코선 종점 010)2929)8000
No. 27230-2018-00121 달서구 정해부동산 김재덕

대지/임야/공장

아파트 4700세대급 대도로점
1700㎡ 자연녹지
당170만 010)4538)4590

급매 달서구 대도로점 3012㎡3층
주거 명도확실 다용도 3.3㎡
당 1600만 급급매 053)765)9882
No. 27260-2017-00171 수성구 황금수성명인 배현철

급매 공장 성주읍 산상리 대767
건160(사무실) 신축, 고8M
증축가능 매8억 010)3528)3307
No. 7-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용계동 청·고물상·다용도
9369㎡(936)

투자 땅 준주거·자연녹지 53백
만원 010)3810)3302

다용도 (토지) 반야울 35㎡대로
점 대1800㎡ 건800㎡
부동산사절 당1000만 010)6439)4989
No. 27140-2015-00177 동구 신서명동인 이상문

경산시 와촌면용천리 대구대권
퍼스북문부근 7,574㎡ 건
축, 생산관리 당31만 010)3509)7789
No. 27260-2015-00087 수성구 대경명동인 최재국

서대구공단 네거리 대로점
다용도 명도됨
대1521㎡ 매매가69억 010)5399)4122

팔공산 뒤면 신명면 차산리
계곡가거진 보전관리
2,288㎡(692) 당20만 010)3509)7789
No. 27260-2015-00087 수성구 대경명동인 최재국

청도 이서 대곡 당5,000원
27,768㎡(8,400)
자연과학계산물 남동향(010)3819)1212

대나무 고령군덕곡면안야17,455
㎡ 향대나무숲 동내뒷산
도로점 매1억1000만 010)3519)0065

까페 전원주택 감추! 청도 운산리
계획관리 11,220㎡(3400) 당
39만 저수지전망 초급매(010)8582)5810
No. 27200-2021-00067 남구 고객감동 이상규

투자용 땅 (급매)
94,876㎡(27800)
북안C부근 / 임야 전
계획관리지역
010)8579)1801

기타부동산

**우사허가
신축우사** 지 대항 11,240㎡
분할매 ㎡당7만6천
전세1,749㎡(급약
의) 010)3529)1377

분실공고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177 동일스위트더파크 116동
504호(계약자: 이재범)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이후 무
효임.

**막걸리 유통 대리점
(대구·경북 총판)
사업같이 하실분을 모십니다!**

공장 증설 / 신제품 출시 / TV광고 예정

대리점 관리 및 영업·배송 하실분

- ▶보증금 5천만원
- ▶월수 600만 ~ 1,000만
- ▶(대리점 판매수익 5:5 배분)
- ▶성실하고 영업력 있으신 분
- ▶1톤 냉장탑차 별도 구입

**3억~5억
돈대여
하실분**

- ▶매 월 1.5% 이자지급 (연18%)
-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원하시는 분
- ▶3년 단위 계약 (연장가능)
- ▶현재 전국 유통망 납품중

대진 010-5883-3345

콘도 회원권 급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 매각합니다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기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660	1,880
		스위트형 방2개	3,790	2,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대천, 수안보, 제주, 거제, 산정호수	디럭스형 방2개(기평)	2,530	1,780
		디럭스형 방2개(무기평)	3,160	1,9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둔산, 수안보,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21) 방1	1,980	1,080
		스위트A(26) 방2	2,120	1,480
		스위트B(31) 방2	2,600	1,6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키리조트,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로얄(35) 방3	3,550	2,480
		실베(24) 방1	2,250	1,380
	골드(28) 방2	2,650	1,680	
	로얄(34) 방3	3,960	2,9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6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11조·교육청 5조 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성과 부족한 사업 과감 축소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중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이달 6일부터 닷새간 경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1조원과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경북도지사와 경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경북도가 11조2천52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조6천548억원보다 5천979억원(5.6%)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5조1천1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4천57억원보다 7천105억원(16.1%)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민생지원 ▷고용위기 해소 위한 지역일자리 확대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 교육결손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생 안전 강화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안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6, 7일에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생하게 됐다. 6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중계에 이어 7일 같은 시간 경북도 소관 4개국(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예산안 심사 활동도 방송됐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심성 사업 및 우선순위가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코로나19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과 아이들의 학습결손 보충 등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홍 기자 apple@maeil.com

“구미시 공영주차장 24시간 운영하자”

장미경 시의원 관리 효율화 주장 “무인정산기 도입 편의성도 향상”

장미경(국민의힘·사진) 경북 구미시 의원은 7일 “구미시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이 제각각이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다수 공영주차장이 부분 유료화를 하거나 부분 개방에 그치고 있어 주차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마다 운영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무료 장기주차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미시는 8개 구역에 4천157



개 면수의 공영주차장을 구미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금오산 대주차장의 경우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구미시청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오산-광평천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장 의원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하자”며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으로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경산시의회 정례회 개최 예산·조례안건 20건 처리

경북 경산시의회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제23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선 3~10일 상임위원 활동, 13~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1조1천461억원 편성, 전년 대비 11.3% 증가)과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미옥, 부위원장에 박순득, 위원에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손병숙, 엄정애, 이철식, 황동희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내년 지방선거 출마합니다

“구미 권역별 문화·관광·레저 육성”

시장 도전 김석호 국힘 위원장

김석호(사진) 국민의힘 민중화해분과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으로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대기업 이탈 및 투자 위축, 주력 품목의 경쟁력 약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구미 경제는 적신호”라고 진단하면서 “현장에서 소통하며 쌓아온 간접함이 ‘성공적인 구미시의 변화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2006년 구미 모바일특구 건설 이명박 대통령 공약 채택 범시민운동을 주도했으며, 구미의 R&D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금오공대 부지를 산학연 구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그는 “구미를 권역별로 문화·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도시 구미를 만들겠다”면서 “비공산권, 천성산권, 금오산권,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 운동, 낙동강 자연환경 등의 문화유산과 건축물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선산과 낙동강체육공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스포츠 레저를 통

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기·전자, IT의료, 국방ICT, 차세대 모바일, 3D프린팅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켜 인공지능 특구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미 지역의 빈 오피스텔과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국내·외 젊은이들을 구미로 유치, ‘글로벌 청년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TV매일신문 특별기획 [2022 지선 기획 ‘나 어때요’]에 출연해 구미시를 1천억 달러, 100만 도시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성훈 기자 cdrom@maeil.com,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주민이 주인되는 칠곡 만들겠다”

군수 도전 이재호 전 군의회 의장

이재호(65·사진) 전 칠곡군의회 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칠곡군수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그는 재선 군의회원으로 8대 칠곡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칠곡의 정서와 주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이 주인인 칠곡을 만들기 위해 군수에 뜻을 세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칠곡군은 지금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



다”며 자신이 적합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평생을 지역에서 살아왔기에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칠곡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을 역임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고향 칠곡에서 나고 자라며 지역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공부하는 군의원, 소동

하는 군의원으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칠곡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청년·육아·일자리 등 주민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유튜브방송 채널 ‘책방아저씨 이재호TV’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복지, 산업 등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칠곡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하는 리더, 공감하는 리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왕성한 패기와 황소 같은 추진력으로 칠곡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역설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신현국 전 문경시장 출판기념회

‘문경의 도약과 일등농촌 이야기’ 재선 도전 앞두고 성과·포부 정리

신현국(사진) 전 경북 문경시장이 오는 11일 오후 2시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신의 저서 ‘문경의 도약과 일등농촌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신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문경시장에 다시한번 도전한다. 최근 매일신문을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 후보



로 나타나고 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시장 재임 5년 6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되짚어보고 동시에 아쉬운 순간, 다시 추진해야 할 일도 함께 정리한 책이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직을 내려놓고서도 환경연

구와 집필활동에 매진해 올해 환경영향평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수질관리 및 폐기물처리 분야의 환경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다른 저서로는 ‘환경과학총론’, ‘환경학개론’, ‘시민을 위한 환경 이야기’, ‘환경동네 이야기’, ‘환경대통령’ 등을 펴냈다. 한편 환경전문가로서 환경공학박사이기도 한 신 전 시장은 대구고, 영남대, KAIST를 졸업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경인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겸 공보관, 재선 문경시장을 역임했다. 고도현 기자 dory@maeil.com

모 집 배 달 직 배달원모집 동서변동 아파트 010)3545)5413 대명3동 두류동 일대 배달원 급구 남녀노소, 오토바이소지자 허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민촌1동 754)4370 만촌3동일대 배달원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배달원모집 동성지국 남녀 연령 제한없음 422)0017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985)1137 배달원모집 사원모집 오토바이소지자 및 송현1·2동 거주자 환영 송현 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총무·배달원 모집 남대명지국 656)3122 총무·배달원 대현2동 신암2동지국 월급 약200 214)3113 배달원모집 남부지국 봉곡동 이천동 오토바이소지자 특우대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지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전량지국 경산시 진량읍 경산시 거주자 우대 010)3536)6620	직업배달원모집 오토바이소지자 새벽2시~6시30분까지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원 남철지국 010)3810)7005 배달원모집 신천동, 신암동 일대 010)3046)3113 배달원 모집 북구 신격1·3·4동 일대 남녀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지자必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 감삼동, 분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8088 배달원모집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일대 주택 상가 주부환영 경향자대762)4769 배달원모집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모집 남대구·교대·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종로지국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257)2902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모집 달원모집 달성군 농공·육포 읍면 소재지, 남녀노소 정년, 퇴임자, 오토바이소지자 우대 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 일대 남녀노소 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동 두류동 일대 남녀노소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매일신문중봉 010)3515)6388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매일신문중봉 010)3515)6388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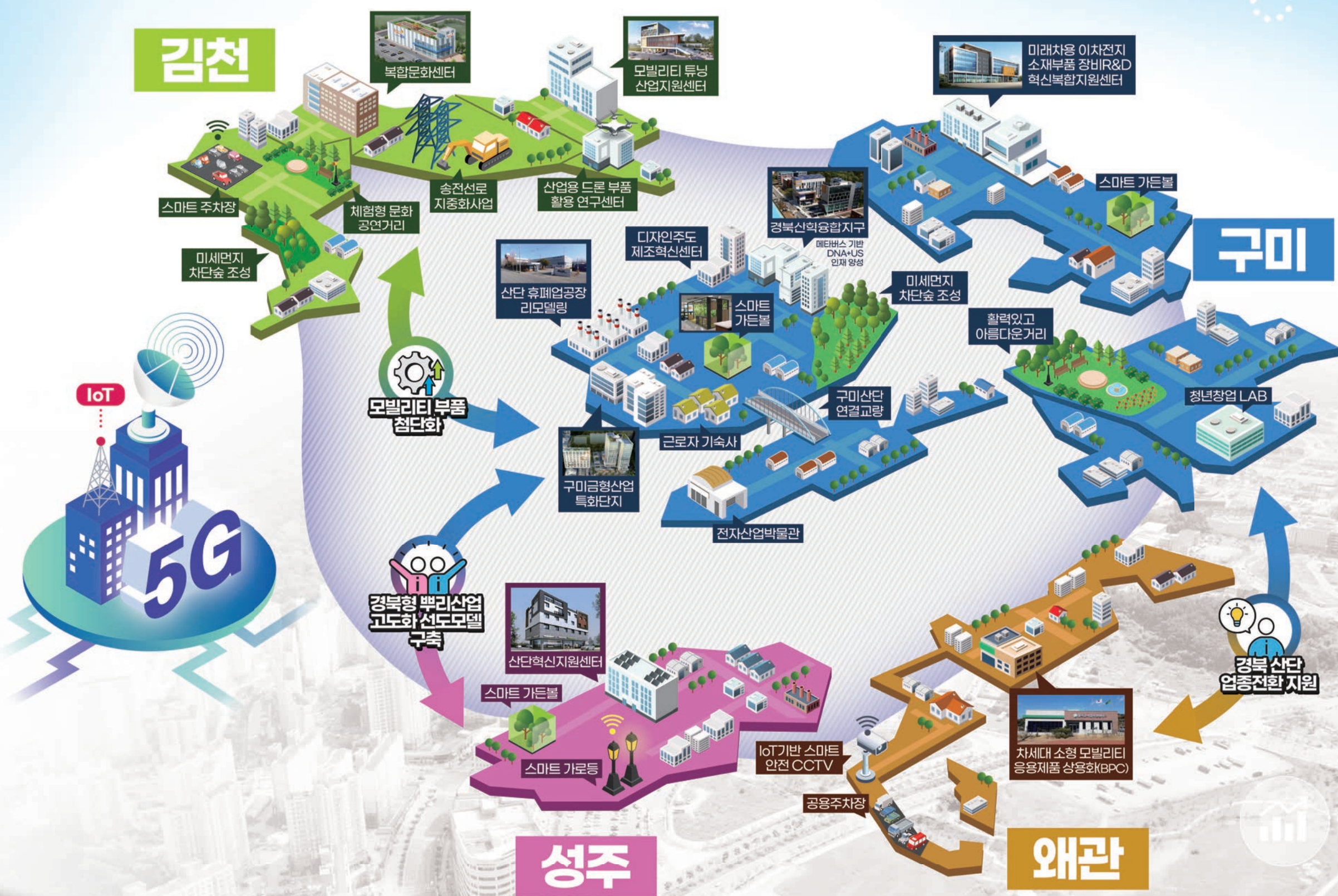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251-1234	영남결혼 (국가등록임소 보증보험가입) 32년 경력 국내 결혼 전문 ♥특별초혼·재혼 전문임소♥ 주 (초혼·재혼: 256-9624 대구2010년 아 010-3533-9624 -16호)	국내 전문 수임결혼정보 초혼·재혼 (초혼) 의사·교사 등 대구·경북·서울 등(다수확보) (재혼) 재력이 강, 공직, 안정직(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89길45(연동101호) 대구2008-38	대출·채권 광고문의: 251-1234	판결공시 제1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 5494 사기 피 고 인 최현석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2. 6.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성욱	판결공시 제1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99 (2020고단5698, 2021고단 732, 2021고단852, 2021고단 1346, 2021고단2473) 사기등 피 고 인 김지희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2. 6.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성욱	증자/잔고증명 주식대출/카드대출 053-218-0171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문화 정착의 밑거름입니다.
--	---	---	--------------------------------	---	--	--	---------------------------------------



경북 산업단지개조 프로젝트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도약합니다.

프로젝트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R&D(제조혁신)
-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산단혁신지원센터
- 경북 산단 제조온라인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일자리 창출

- 복합문화센터, 스마트 가든볼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 경북 산단 이동식 모듈 교육 및 컨설팅
- 경북형 뉴딜 메타버스 기반 DNA+US인재 양성

산단 인프라

-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미세먼지 차단숲
- 클린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 제고

대구 고령층 확진 2배·사망 2.5배 늘었다

(60세 이상)

위드코로나 한 달 방역지표 악화
돌파감염 62%로 평균 웃돌아
市, 목욕탕 1대1 전담관리제
전담 병상 45개 추가 확보 등
고위험군 특별종합대책 추진

지난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대구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높아졌고 돌파 감염과 사망자도 급증했다. 이에 대구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보호 대책 추진에 나섰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월 52.1명에서 11월 61.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은 같은 기간 22.2%에서 43.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10월 20명에서 11월 52명으로 2.5배 늘었고,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이다.

집중 완료자가 확진이 되는 돌파 감염 비중의 경우 11월(20일 기준)은 54%에 달했다. 이는 전달인 10월 21.8%보다 가파르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11월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돌파 감염은 61.8%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대구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정신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는 주 2회 진단 검사를 하고, 이용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률을 높이고자 방문 접종 등도 벌인다.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시설을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미접종자는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고령층 이용이 많은 목욕장은 공무원 1대1 전담관리제를 통해 관리한다.

시는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역 4개 삼급종합병원에 전담 병상 45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치료와 보호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집중률을 높이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aeil.com



재택치료 키트 배달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인 지난 7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집으로 재택치료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안성환 기자

하루만에 자가격리자 1천명 ↑, 이유는?

(대구 7일 기준)

신규 감염 사흘 연속 세자릿수
접종률 낮은 청소년 확진 늘며
접촉자 백신 안 맞은 경우 많아

대구에서 10대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가격리자 수와 병상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자가 대다수여서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자가격리 조치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루 만에 자가격리자가 1천96명 늘어 총 자가격리자는 3천394명이 됐다. 병상 가동률도 64.7%로 전날(61%)보다 3%p 이상 증가했고 재택 치료 인원도 191명으로 하루 만에 31명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지역감염은 129명으로, 사흘 연속 세 자릿 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후 9시까지 124명이 추가됐다.

7일 0시 기준 지역 내 학교와 학원에 10대 이하가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수성구 초등학교 학생 3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다. 이 학교는 지난 4일 의심증상을 보여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학생 1명이 첫 확진된 뒤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다.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다니는 동구의 체육시설(유도학원)에서는 n차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유도학원 7명, n차 9명)이 됐다. 이과 관련 확진자 가운데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2명이며 이 중 9명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된 나머지 3명도 각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산발적인 감염도 10대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이날 북구 유치원 원생 2명이 확진돼 원생 27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수성구의 PC방에서는 이용자 2명이 확진돼 PC방 방문자 8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달성군의 중학교 학생들이 이 PC방을 많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구지역 감염 추세가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12~17세에 대한 접종을 독려했다.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12~17세 연령층 접종률은 23.8%로 전국 평균(32.5%)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청,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이 원하는 접종 방식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가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거나 위탁기관을 개별 방문해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청소년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수 기자 index@maeil.com

남아공서 일하는 한국인 의사가 본 오미크론은...

“감염 초기 증상 감기와 비슷 가벼운 호흡기 질환될 수도”

“현지 확진자 70% 이상 변이 감염 위중 환자 없어 대부분 재택 치료 어린이·20~40대 확진 증가 추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국인 안승지(40) 박사는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증상이 아직은 가벼운 편”이라고 말했다.

안 박사는 “남아공의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초기 증상이 감기와 같아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아공은 지난달 2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했다.

현재 남아공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감기와 피로, 열, 인후염, 콧물 등으로 가벼운 편이고 무증상

도 있지만 위중한 환자는 없어 재택 치료를 위주로 한다”고 설명했다.

남아공 현지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보이는 환자는 일선 외래 환자 치료 지침에 따라 감기처럼 약한 증세면 비타민을 처방하고, 증상이 발현된 지 6~10일 기간에 호흡기가 가빠지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있다고 한다.

안 박사는 “이전과 달리 최근엔 코로나19 감염자의 30%가 어린이였다”며 “하지만 코감기 증상이나 목이 아픈 정도였고 입원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의 동료 의사들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이전보다 어린이 감염자가 많아졌고 20~4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도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고한다는 게 안 박사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남아공에서는 지난 며칠 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고 1만6천 명대로 급증했고 양성률이 26.4%까지 높아졌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한 환자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은

팀킴 보조금 가로챈 前컬링연맹 부회장 감형

향소심서 1심 실형 파기 집유
“일부 반환·결정 발전 성과 잠작”

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7일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반석 전 평창 올림픽 흥성팀(믹스더블) 감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 전 부회장에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진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북체육회 등에 일부 금액을 공탁해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컬링 발전을 위해 의성컬링센터를 설립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hj224@maeil.com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진산철학관
사주, 점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생, 병명약이 고생하는분, 친절상담, 족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주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밀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매일안내 광고문의
053)251-1234
080-711-2001
每日新聞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게모임, 단체는 **13인승 슬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훈기나는 조립식 전기온돌 판넬
건설은수 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 수평과 동일

우진산업 우진훈기나
www.woojinon.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만병을 고치는 법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아픈분)
발명특허 기술획득
저서 허리병 7일만에 완치시키는 요법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불행만 하는가?
수백 차단하실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상담 010-3829-7582

30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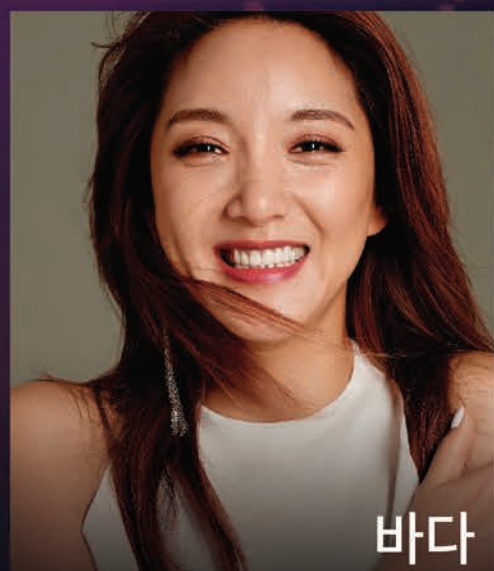
가발명장 1호 천정일
30년 연구한 가발 셀모가발 010-6250-3899
(국제기대대학 산업역사, 가발명장 중서) (반월당 23번 출구앞)

flower
대구의 미래 달성 꽃피다

2021 심익중심 페스티벌

2021.12.17. (금) 7:30 pm
달성군민체육관

사전예약자만 입장 가능 | 사전예약 : 12. 3. (금) 10:00am www.dsart.or.kr / 053-659-4285 |



바다

SPECIAL GUEST



나린

예술감독 | 방성택



C.O.S



브라비 솔리스트 앙상블



아트라스



페도라



프리소울



달성군립합창단

“수성사격장 권익위 중재안, 주민 갈등 되레 부추겨”

일부 주민 편가르기 의혹 제기 “동조하는 소수 목소리만 청취 외부 유출 막은 점도 석연찮아” 대책위는 정보공개 청구 나서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으로 민·군 갈등을 겪고 있는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매일신문 4일 자 5면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조정안에 오히려 주민 간 분열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일부 주민은 ‘권익위의 발표가 민·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편가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7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인근 주민들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위원장 5명 중 2명이 참석했으며, 권익위 중재안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함께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주민들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소음 측정 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100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명)가 집단 이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권익위가 밝힌 내용 가운데 중재안 수용 여부와 마을주민

집단 이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석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달 25일 주민대표단 최종 회의 때 중재안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을 외부 유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면서 “권익위가 현장 조사를 나올 때마다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주민 2~3

명을 만나는 등 처음부터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석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수성사격장 바로 인근 마을과 다른 마을을 이간질시켜 주민 분열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군사보호구역을 늘려 오히려 훈련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국방부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며 “권익위가 밝힌 50가구라는 수치도 의심스럽다. 발표 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권익위가 묵살하고 발표를 강행했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주민 분열이 촉발되면서 현재 대책위는 권익위의 중재안 수용 발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책위 운영진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권익위와 중재안 찬성 주민들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포항시 남구 장기면 2천803명·경주 오류 3리 주민 240명)들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올 1월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신동우 기자 sdw@maeil.com



멸종위기 흰수마자 내성천에 돌아올까

낙동강 합류부 1km 구간 대상 생태하천 복원 방안 구상 나서

경북 봉화와 영주, 예천을 거쳐 문경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내성천의 고운 모래에 서식하다 최근 지취를 감춘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흰수마자(사진)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낙동강과 내성천 합류부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낙동강 서식 흰수마자의 이동을 도와 내성천 흰수마자 개체를 복원하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말 내성천·낙동강 합류부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내고 수형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용역은 내성천과 낙동강의 합류부에 설치된 하상유지시설의 하나인 취수로로 인해 하천 생태의 연결성이 일시적으로 단절, 흰수마자가 낙동강에서 내성천으로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겪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간 내성천은 집단 서식처가 형성돼 있을 만큼 흰수마자의 국내 대표 활동 공간이었다. 하지만 2016년 492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난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1마리(10월 기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내성천 중상류에 건설된 영주댐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영주댐이 모래 유입을 막고 녹조를 발생시켜 수질을 나쁘게 하는 등 내성천에 악영향을 끼쳐 흰수마자 서식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 약 1km 구간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 방안 구상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수공 측은 이번 용역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계획조사 ▷기초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방안 정부 협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밑그림을 그린 뒤 본격적인 복원 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영재 기자 pyc@maeil.com

바가지요금에...화랑대기 축구대회 이미지 구겨

경주 일부 업소 숙박비 2배 올려 요금 사전신고제 필요 의견 나와

최근 경주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기간 일부 숙박업소의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으로 대회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주에서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치렀다. 전국 최대 규모 대회인 만큼 전국 250여개 팀이 참가해 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비수기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도 톡톡히 했다. 7일 위덕대 산학협력단의

화랑대기 축구대회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회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액 79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9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14명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단 7천600여 명이 경주를 찾았고 평균 4.2일을 머물렀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스카우트 등 5천 600여 명이 대회 기간 경주를 방문, 평균 2.1일을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일부 숙박업소가 선수단과 학부모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회 및 경주시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가팀과 관계자의 80% 정도가 불국사 숙박단지를 이용했는데, 이곳 일부 숙박업소가 평상시 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숙박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선수단 학부모 A씨는 “평소 숙박료가 10만원 정도인 곳에서 20만원의 요금을 요구했다”며 “바가지요금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내권 업소를 이용한 학부모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축제 기간에 이용자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소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향후 대회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과 지도·단속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김도훈 기자 hoon@maeil.com

대봉교 게이트볼장 담장 선심 행정 논란

환경단체 “시민 쉼터 가로막았다” 특정 집단 편의 봐줬다는 지적에 중구청 “원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

대구 신천 대봉교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철제 담장에 대한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7일 “대봉교 아래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철제 담장은 대봉교 쉼터를 가로막는 특정 집단을 위한 선심 행정”이라며 “중구청은 지금이라도 쉼터를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올 9월 말 대봉교 아래 게이트볼장에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기존 그물망이 노후화돼 미관 문제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

해 ‘선심성 정책’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음수대마저 담장으로 둘러쳐 시민의 발길을 막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또 “대봉교 아래는 원래 한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등 시민이 휴식하는 곳인데 느닷없는 철제 담장 설치로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제외하곤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특정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 누구나 누릴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오전과 오후 2시간씩 게이트볼장 사용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다. 게이트볼장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특정 사람들을 위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혁규 기자 unless@maeil.com

타고~ 걸고~ 탄소 다이어트 사진 공모전

공모기간 ~ 2021.12.15

공모주제

- (전기)자전거·대중교통·무동력 이동수단·보행 등 평소 출퇴근 또는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인증샷
- 자전거 이용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인증샷
- 친환경 교통수단 또는 교통정책을 이용·체험한 인증샷
- 대구의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인증샷 등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으로
‘환경은 탄소다이어트’
‘내 몸은 건강 다이어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의 중요성

코로나로 자전거 이용 UP
규칙 준수 UP
안전 사고 DOWN

공모방법 1인당 3작품까지 가능
(크기: 1MB 이상, 형식: jpg파일)

공모기간 2021년 12월 15일 까지

참가대상 대구시민 누구나

참가특전 (예정)

- 선착순 200명, 4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 추첨 또는 선별하여 자전거 10대 및 기타 부상품 지급

제출방법

- 매일신문 포토갤러리 홈페이지(<http://photo.maeil.com/>)
- 상단 공모전 '접수하기' 클릭 후 접수
- 매일신문 홈페이지(<http://www.maeil.com/>)
- 행사배너 클릭 후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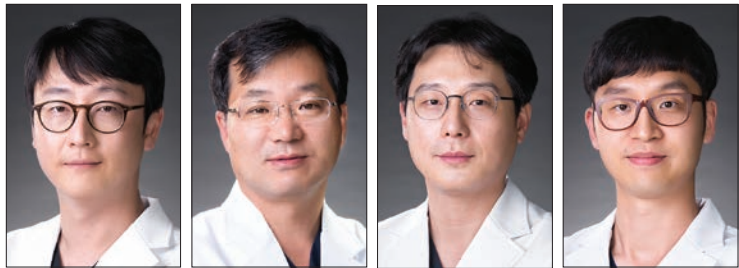
주최 每日新聞

후원 대구광역시

M

MEDICAL
의료

♂ 바이폴라 내시경 전립선수술



정석진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윤재식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권영기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박창현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소변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소변은 마려운데 아랫배에 힘을 쥐고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옆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일을 다 봤는데도 자신은 한참 힘을 쓰고 나서야 겨우 가느다란 오줌 줄기가 졸졸 나온다.

소변을 다 본 후에는 똑똑 떨어져 바지까지 적시기도 한다. 뒤돌아서면 다시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뛰어 가게 되고 가보면 마찬가지로.

전립선비대증은 장·노년층 남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여기며 세월을 타하게 된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막상 소변을 보려 해도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본 후에 잔뇨감을 느끼게 되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게 된다. 특히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면 잠을 설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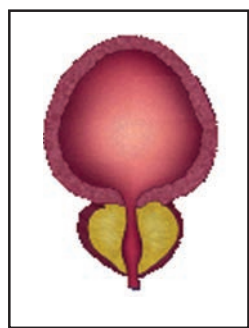
되어 주간활동 시간에도 졸음과 피곤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전립선비대증치료 이젠 '바이폴라 내시경수술'을 현재 전립선비대증 수술에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인 '바이폴라(bipolar) 내시경 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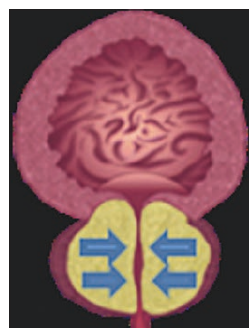
현재 효과적인 표준수술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중에서도 바이폴라 내시경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국소 또는 하반신 마취로 입원이 필요 없으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전기소작기로 신속하게 절제하여 출혈이 거의 없이 시술이 가능한 방법이다.

비교적 작은 초기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개복수술이 필요한 큰 전립선비대증에서도 합병증이 거의 없이 당일 수술·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원하거나 합병증을 줄이고 싶은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법이다.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배뇨통, 혈뇨 등이 있을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진행성 질환으로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점이 있다.



정상크기의 전립선



전립선비대증과 좁아진 요도

에스연합비뇨기과의원
서부점: 053)626-7766 / 북구점: 053)941-7766
북구점: 053)941-7766
심의필 제110803-중-23410호

건강 칼럼 병의원

- 에스연합비뇨기과의원** ▶ 서부점: 053)626-7766 / 북구점: 053)941-7766
- 제니스안과의원** ▶ 053)743-1828
- 바로본병원** ▶ 1644-8575 www.barobone.kr
-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 053)222-3535 www.ahnclinic.com



백내장 수술

노안과 백내장 동시 해결



유진태 원장
제니스안과의원

주위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듯이 백내장 수술은 치질 수술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년 간 현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백내장 수술도 새로운 수술 기법, 인공수정체가 개발 되어 이제는 백내장 수술이 과거와 같이 한 종류만 있는게 아니라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 여러 특징을 가지는 인공수정체를 선택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물론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일반 인공수정체도 과거와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술 후 염증반응, 후발성 백내장이 줄어들고 양질의 시력을 회복 할 수 있지만, 보이는 질이 우수한 비구면 렌즈, 난시를 교정 할 수 있는 난시교정용 렌즈 등이 개발 되어 보편화 되어 있다.

안과 분야에서 요즘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지는 분야가 노안이다.

노안을 완벽하게 해결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마는 아직도 노안의 원인조차 완전히 밝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백내장 수술 후 표면이 특수하게 디자인 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원, 근 거리를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물론 젊은 시절의 완벽한 원, 근 조절 작용을 기대 하신다면 너무 큰 욕심이다.

수술은 상당히 세밀한 검사와 완벽한 수술이 요구 된다.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

모두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잘 보인다고 믿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술 시기, 방법,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중 가장 믿음이 가는 의사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면 다음 날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백내장·노안을 한번에, 생활을 다시 선명하고 편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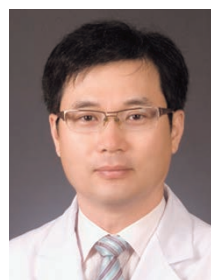
삼중초점 인공수정체



제니스안과의원
053)743-1828
심의필 제100818-중-19173호



항문에서 피가 나오요?



최재석 원장
(외과전문의)
바로본병원

대장 항문 진료를 하다 보면 변을 볼 때 피가 난다며 내원하는 환자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항문출혈이 항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치핵 : 합병증이 없는 치핵은 배변시 통증이 없는데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치핵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는 것인데 내치핵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로하거나 전날 음주라도 한 경우에는 더 피가 날 확률이 높는데 이는 내치핵에 울혈이 있는 상태에서는 쉽

게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내치핵이 어느 정도 심한지 검사를 해서 내치핵이 크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까지는 필요없고 좌욕같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피가 난다면 빈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술 같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 : 변비가 심해서 딱딱한 변을 보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치열이라고 합니다. 내치핵은 감각신경이 없어 상처가 생겨도 통증이 없지만 항문쪽 피부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찢어지면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급성 치열은 변비가 안 생기도록 음식 조절을 하고 온수 좌욕을 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계속된 변비로 만성치열이 되면 변 볼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변을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암 : 최근 몇 개월 사이 배변 습관이 변해 없던 변비도 생기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연세가 많으신 분의 경우 만의 하나 직장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받아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치질

이 있어 피가 나 그냥 지나다가 변비가 생기고 피가 더 심하게 나서 치질수술을 받으려고 내원했다가 직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일입니다. 항문출혈을 처음 경험한 후에는 매우 놀라고 당혹스러워 크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년간 계속 항문출혈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전문의의 정밀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피가 난다고 너무 놀라지도 말고 오래 전부터 피가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말고 지금 외과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기를 권합니다.

바로본병원
www.barobone.kr 1644-8575
심의필 제130904-중-48120호



거북목. 일자목증후군



안상호 대표원장
재활의학과의원

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가 반복되면 목 디스크와 주변근육, 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고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피할 수 없어 일자목, 거북목으로 진행된다.

흔히 대표적인 나쁜 자세로 일컬어지는 '거북목'은 등은 구부정하고 턱은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자세에서는 머리와 가까운 상부 목뼈 주변과 하부 목뼈와 등뼈의 연결부 근육과 인대는 굳어지고, 목 뼈의 중간 부위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미세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러한 나쁜 자세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목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본이 된다. 건강한 목의 자세는 옆에서 볼 때 가벼운 C-자 형태를 이루게 된다. 가벼운 C-자 커브를 만들려면 허리와 가슴(명치)을 똑바로 펴야 하고, 이 자세가 유지되면 목의 자세는 자연히 가벼운 C-자가 되게 된다. 목의 자세를 바로 하려면 허리 자세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붙이고, 명치 부위를 펴서 허리를 가벼운 C-자로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컴퓨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화면이 낮으면 등과 목을 수고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작은 화면을 사용

하면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되므로 모니터 화면은 되도록이면 큰 것을 사용하고 글자의 크기는 크게 한다. 마우스와 키보드는 몸 가까이 붙여서 사용한다.

스마트 폰을 볼 때는 눈 높이까지 올려서 보는 것이 좋고, 폰을 길게 보는 경우나 작업 특성상 목을 숙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수시로 목을 펴서 가벼운 C-자로 만들어 목 디스크와 인대, 근육의 혹사를 줄여줘야 한다. 나쁜 자세로 반복되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건강한 디스크상태로 회복은 어려우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이미 목디스크 탈출증이 생겨거나 만성적인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목 통증의 원인에는 디스크의 이상 뿐만 아니라, 목 뼈의 뒷부분에 있는 목뼈 관절 이상이나 경추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목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90% 정도는 적극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01120-중-115949호

14년 한결 같은 초심

14년을 지켜온 전통과 신뢰!
변함없이 지역민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준비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S 재건 MS 재건병원

개원 14주년
건강재건, 행복재건, 미래재건
동인네거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시행
대구시 중구 동덕로 194

신료내용
손발, 어깨, 무릎, 목, 허리, 골절, 외상
24시간 응급진료. 053.653.0119

DGB Index (7일)

코스피 2,991.72 (+18.47P)

코스닥 996.64 (+4.77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872 (+0.007%)

환율 (원-달러) 1,179.50 (-3.50원)

금값 (1g) 68,210 (-180원)

DGB대구은행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 증권연계계좌로 가능

"한발 빠른 뉴스" 매일신문 앱

“하나 뿐인 아이 최고로” 아동의류 매출 228% 급증

유통가 아동복 시장 '저출산 역설' 현대대 전년 대비 40% 경증 명품 브랜드 매출도 20.9% ↑ "자식에 부정적 영향" 우려도

아이들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유통업체가 체감하는 아동복 시장의 규모는 커져가고 있다. 한 자녀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고가의 아동의류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따르면 올해 12월 5일까지의 아동의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6% 늘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올해 1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 데 힘입어 지난 3월 매출이 228.4% 급증했다.

백화점 업계는 출산율이 떨어져 감에도 아동복 브랜드 매출을 강화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통상 아동 섹션은 스포츠 등 다른 섹션과 같은 층을 공유하지만,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9층 전체를 아동·유아 섹션으로 구성했다. MZ세대에게 익숙한 브랜드인 휠라키즈·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네파키즈·블랙야크키즈 등 20개 아동복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아동복 섹터 기준에서도 변화가 눈에

뵈는 부모들이 성인용 옷을 축소한 느낌을 주는 '미니미룩'을 주로 찾는다는 게 백화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0·40대에 잘 알려진 브랜드의 아동 버전인 헤지스키즈와 베네통키즈가 각각 98.9%, 39.2% 증가했다.

한 백화점 직원은 "20년 전엔 만화캐릭터가 그려진 아동복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켜 왔다는 의미"라며 "최근엔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입힌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아동 의류도 잘 팔리고 있다. 명품 아동 브랜드인 버버리칠드런의 경우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9% 신장했다. 사이즈가 작은 아동 의류 특성상 성인복에 비해 원재료가 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베이지 체크무늬를 띤 아동 패딩은 8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눌린 해외여행 등 수요가 명품 소비로 대체된 연장선상에서 명품 아동복 수요가 늘었다"면서 "특히 오랜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휴식이나 자신감을 잃진 않



헬로키티 스페셜 와인 할인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지하 1층 식품관 와인코너에서 헬로키티 스파클링 스페셜 에디션 와인을 할인해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대구백화점 제공

을까 하는 등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이 고가 아동복 소비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의류를 사서입히는 부모의 라이프스타일이 자녀에게도 녹아들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정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키우는 자녀 수가 적다보니 '한 아이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 인식이 어린 자녀에게 고급 의류를 사주는 현상을 불

렀다"며 "'애기 죽을까봐' 무리해서 사주는 현상도 있는데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부모의 이 같은 소비 선택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선진 기자 bsj@maeil.com

2028년 대구서 '亞太약리학회' 열린다

APFP 이사회 2차 투표 끝에 확정 기초의학 분야 국제행사 모두 유치 권 시장 "지역 의료산업 육성 발판"

대구가 2028년 '아태약리학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구는 지난해 27일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약리학 연합'(APFP) 이사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2028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인겸 경북대 의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약리학회 유치위원회는 대구시, 대구 컨벤션뷰로와 함께 2017년부터 아태약리연합 국제본부에 대구 유치 의향을 밝혔다.

대구는 유력한 후보지였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

여 유치에 성공했다.

아태약리학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초 및 임상 약리, 독성학, 생리학 등을 연구하는 약리 전문가, 연구소, 제약기업 등 26개국 1천명이 4년마다 모이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약리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는 유치 전략으로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내세워 신약개발 등 첨단 연구시설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첨단임상시험센터가 건립되면 첨단지에서 신약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시험과 생산, 판매까지 지원할 수 있어 한국의 첨단의료산업을 견인하는 현장을 완성하게 된다.

더불어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 빠르게 구축한 온·오프라인

첨단 회의 시설을 갖춘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컨벤션뷰로가 구축한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한 발표 영상은 대구의 국제회의 인프라와 유네스코 관광자원 등을 생생하게 표현해 아태약리연합 이사진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대구는 2018년 세계기생충학회, 2019년 세계뇌신경과학총회, 2023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생리학회를 포함해 이번 아태약리학회까지 기초의학 분야의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유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2026 세계경제활성화회의에 이어 대규모 의료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다"며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제약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의료산업 육성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대구 산단 올 3분기 평균 가동률 70% 돌파

전년 동기 대비 6.85%P ↑ 1년새 뚜렷한 회복세 보여

올해 3분기 대구지역 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이 70%를 돌파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7일 '대구시 3분기 지역 산업단지 생산지표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대구 전체 산단 평균 가동률은 70.02%로 지난해 3분기(63.17%) 대비 6.85%포인트(p)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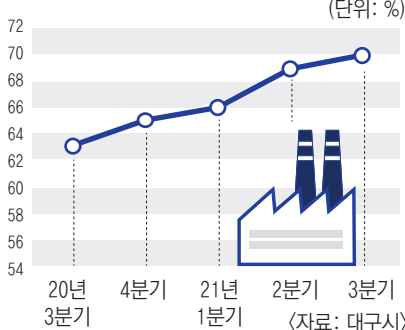
대구 산단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59.34%로 바닥을 찍은 뒤 당해 3분기 63.17%, 4분기 65.25%, 올해 1분기 66.12%, 2분기 68.96%로 꾸준히 상승했다.

3분기 지역 산단 생산은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7조7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성서산단과 대구국가산단 생산액이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감소했지만, 테크노폴리스와 달성1차산단 호조로 전체 생산액이 늘었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산업단지 분기별 가동률 추이 (단위: %)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 제외), 기계장비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고무제품과 플라스틱제품,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등에서 감소해 전분기보다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고용은 전분기 대비 97명 감소, 전년 보다는 1천324명 늘어난 11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입주업체 수는 전분기 대비 26개, 전년 대비 194개 증가한 9천458개사였다.

성서산단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가동률이 회복세이긴 하지만 수주 물량 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증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에 로오인이 존재한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구미국가산단-팜한농 MOU 농약 신물질 생산 130억 투자

구미국가산단 내 LG제철 그린바이오기업 (팜한농과 구미시는 7일 농약 신물질 '티아페나실' 생산라인 증설에 13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은 20여 명이다.

이날 투자 MOU에는 이유진 (팜한농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팜한농은 1953년 창립, 대한민국 농업과 함께 발전해온 그린 바이오기업으로 1977년 한국농약(구)구미공장 출발로 구미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16년 LG화학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2018년부터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유진 팜한농 대표는 "그린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팜한농은 구미산단 발전의 상징적 기업이며, 대한민국 그린 바이오 역사를 대변하는 기업"이라며 투자유치에 대한 기쁨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ich888@maeil.com

2021 CHRISTMAS SEAL 결핵퇴치,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합니다.

대한결핵협회 ×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씬

★ 크리스마스엔 유니버스 세계로~ go go ★

2021 CHRISTMAS SEAL with 놀면 뭐하니?

아무런 계획 없이 손에 쥐어진 작은 카메라에서 시작된 "놀면 뭐하니?"는 국민MC 유재석의 무한확장 유니버스(YOONVERSE)를 통해 어느덧 우산술, 유아호, 우라과우스, 닭다리 등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상상하지 못했던 캐릭터로 유재석의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여 때로는 울로,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내는 도전 속에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나누고자 MBC "놀면 뭐하니?"와 국민MC 유재석이 보여준 열정을 크리스마스 씬에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한해 2만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1,600여명의 생명을 잃어가지만 매년 환자수가 감소하며 결핵 없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어있지만 오늘이 아닌 내일, 그 끝은 존재하며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씬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과 수많은 기부자의 열정을 모아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없는 세상,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씬은 기부입니다.

- 크리스마스 씬 모금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국내외 결핵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크리스마스 씬 모금에 참여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053-474-4713

13개 정원이 살아 숨신다, 자연친화 테마 공간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이달 분양

잔디 광장·석가산·EQ동산 등 조성
환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
지상 최고 15층 1458가구 규모 단지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이종원)은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을 12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대구 동구 신암동 139-69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 총 1천45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 분양분은 총 952가구다. 전용면적 39㎡, 59㎡, 75㎡ 84㎡A, 84㎡B, 111㎡로 구성한다

화성산업은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을 적용해 오감을 만족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테마 공원을 설계했다.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인 설계로 통풍과 채광이 뛰어난 4베이 판상형(일부)에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 공간(일부)을 넉넉히 배치했다. 또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대로변 350m 스트리트형 대형 상가를 배치해 입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자연친화적인 단지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아 2021 환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을 수상했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외관설계와 그린 단지환경 조성이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대상 수상작에 걸맞게 특화된 자연친화적 조경이 돋보인다. 아파트 각동 사이에 13개의 아름다운 테마정원을 조성해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13개 테마정원은 ▷오픈 스페이스와 잔디 광장이 있는 커뮤니티공간 '에버그린파크' ▷웅장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조감도.

화성산업 제공

한 산세와 폭포의 절경을 축경식(자연의 풍경을 축소해 만든 조경 형식)으로 표현한 '석가산' ▷다채로운 식물과 생태계류가 어우러진 수경시설 '물빛정원' ▷유럽형 정형식 정원을 모티브한 중정 '파티오' ▷전통적인 재료들을 이용해 옛 선비들의 정원을 표현한 '전통정원'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감성적 정원 '리플래쉬 가든' ▷질은 녹음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대왕참나무 산책로'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인 'EQ동산', '키즈

랜드', '드림랜드' ▷어린이집과 연계한 유아들의 놀이공간인 '꿈나무동산' ▷입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야외운동시설인 '건강마당'과 '힐링정원' 등으로 구성했다.

단지 내 다양한 테마공원과 함께 외부에는 신암공원, 단지 북쪽 기부채납공원(예정)을 비롯해 KNU센트럴파크, 기상대기념공원, 금호강 등이 어우러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 단지 북쪽에 조성 예정인 신암1가로공원(가칭)은 약 5천295㎡ 면적에 교목과 관목, 초화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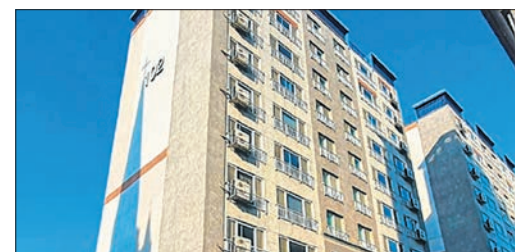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파고라 및 의자등을 갖추고 산책로와 보행로, 암석원 등을 단지와 연결해 입주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화성산업은 '북서울 꿈의 숲', '부산시민공원', '동탄호수공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조경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 수도권에서 호평을 받은 '운정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의 단지 내 정원인 '파크드림 파티오'가 2020년 굿디자인에 선정됐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대구경북 관심 공매 물건



◆경북 고령군 다산면 아파트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6-2 허브리치 102동 5**호

▷관리번호 : 2021-09843-001

▷내용 :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소재 '다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상가가 혼재한 지역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단지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 진입입구는 동측 도로 및 남측 다산로를 통해 가능함.

▷규모 : 토지 47,166㎡, 건물 81,161㎡

▷감정가격 : 금 239,000,000원

▷최저입찰가격 : 금 239,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022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대지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04

▷관리번호 : 2021-10319-001

▷내용 :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풍천풍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학교, 상업단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재 상업나지 상태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50미터,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규모 : 토지 6,240.9㎡

▷감정가격 : 금 23,777,829,000원

▷최저입찰가격 : 금 11,888,915,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www.onbid.co.kr)은 2021년 2022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경본부

파동 숲세권에 '아파트 대상' 스위첸

(환경주거문화대상)

KCC건설 수성 포레스트 내년 1월 분양
펜트하우스 2개 포함...17개동 755가구

KCC건설은 2021년 하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에 빛나는 대구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을 내년 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환경주거문화대상은 올해 21번째를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주거·부동산 분야 시상으로, KCC건설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수상작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차세대 디자인 매뉴얼인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하는 단지다.

KCC건설 관계자는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 수성구에서 도시문명과 자연환경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소개했다.

단지는 수성구 파동 118-118번지 일대 4만5천72㎡ 부지에 17개동 75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74㎡~160㎡ 중대형 위주 19개 타입에 최상층 펜트하우스가 있는 2개 타입을 구성했다. 단층형, 복층형, 테라스형 등 다채로운 유형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판상형 4베이, 세대 전용창고, 호텔식 분리형 욕실, 거실·주방 일차형 배치 등으로 공간 활용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동은 수성구 숲세권 브랜드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수성못 코오롱하늘채, 더 펜트하우스 수성, 수성 아이파크 등이 입주해 있고 수성 더밸리스 푸르지오더샵, 수성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조감도.

KCC건설 제공

해모로 하이엔 등이 공사 중이다.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이 분양 중이며, 동부 센트레빌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외 강촌3지구, 대자연1차 재건축, 대자연2차 재건축 등 5곳이 분양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새 아파트만 7천여 가구가 밀집한 신흥 주거타운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공정률 94%인 4차 순환도로가 내년 중 전 구간 개통하면, 파동은 반대편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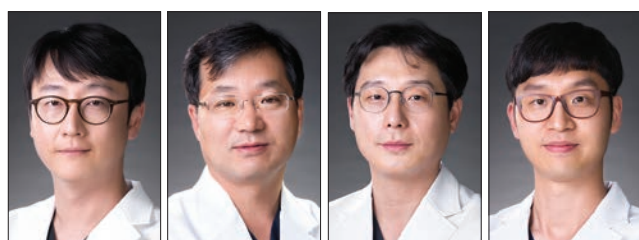
는 팔공산과 칠곡까지도 신호 없이 대부분 무정차로 다닐 수 있는 교통요지로 거듭난다.

또 파동초, 수성중이 가까이 있고 경신고, 경북고, 정화여고, 대륜고,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 명문 수성학군에도 배정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성구에 진입할 수 있는 단지"라고 했다.

이상준 기자

남성들이여 자신감을 되찾자!



정석진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윤재식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권영기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북구점 (진료과목: 피부과)

박창현 원장
에스연합 비뇨기과의원 서부점 (진료과목: 피부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술 후 모양이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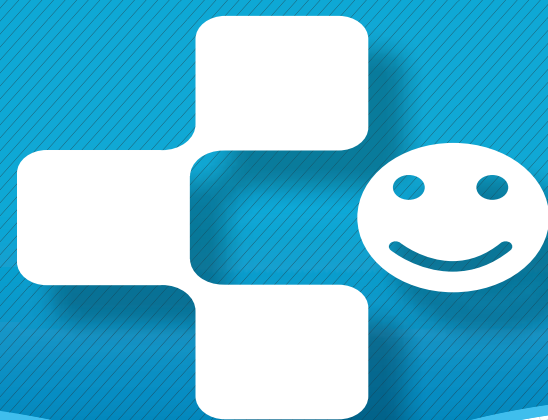
조루증이 있는 경우에는 음경의 배부신경을 차단하여 귀두의 감각을 둔하게 해주는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시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동시수술'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두 수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수술간 시간적 터울을 뒤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비용적으로 더 소요되며 시술 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귀두확대일 경우 높은 흡수율로 인해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다.

남성성형술의 현 추세는 이 세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며, 남성의학으로 음경의 모양과 성기능 장애를 개선시킨다면 인생 또한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에스연합비뇨기과의원
서부점: 053)626-7766
북구점: 053)941-7766
심의를 제110803-중-23411호

심의를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래 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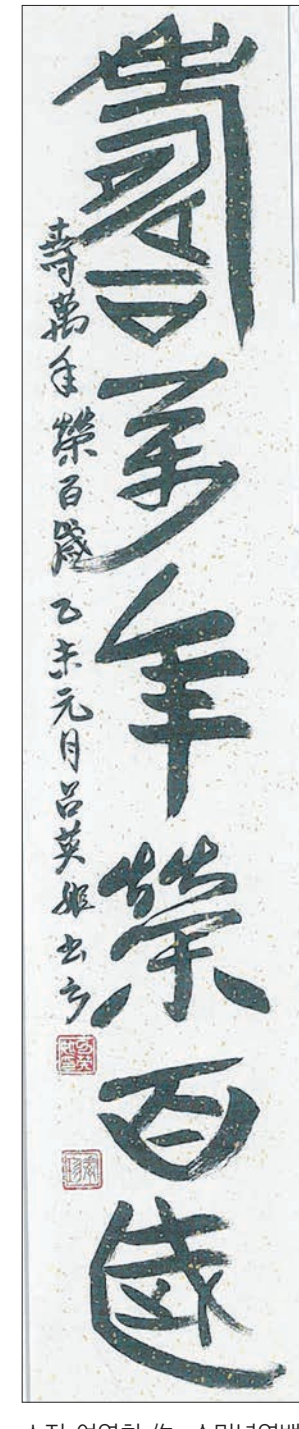
조루증이나 음경왜소증 등 으로 자신감을 상실하면 불안감으로 인해 심인성 발기부전까지 동반되기도 한다. 이처럼 발기부전, 조루증 등 남들에게 말 못할 성기능장애나 저하, 콤플렉스로 고민하는 중년남성이 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기부전, 조루 등의 성기능 문제로 상당수 중년 남성들이 밤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술'이라는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성기능장애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화되면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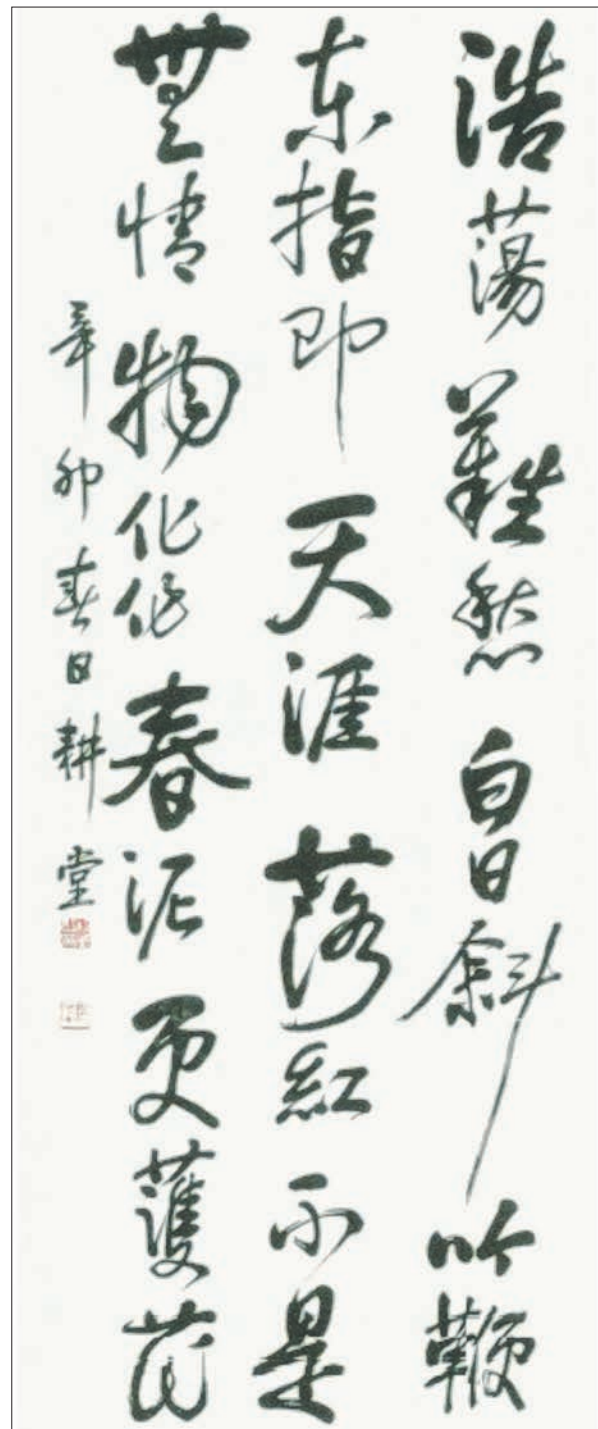
히려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요즘 음경복합성형수술은 음경확대, 귀두확대, 조루수술, 길이연장 등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시술이 가능하다. 저장진피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음경확대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사로 약물을 주입하여 간단히 음경을 확대시키는 편리한 시술이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주사시술로 간편하며 수술 후에도 표식이 거의 없고 과거 다른 시술을 받았던 경우에도 가능하다. 수술 후



소진 여영희 작, 수만년영백수(35x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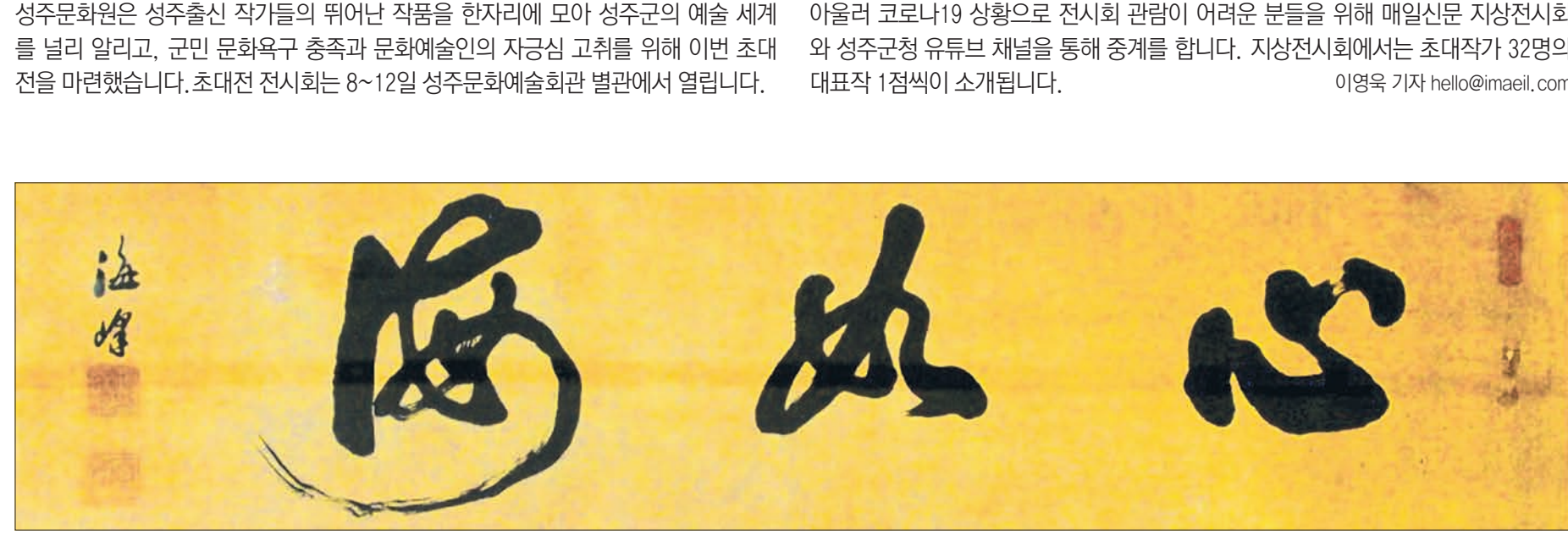
경당 박기열 작, 호탕이수(浩蕩難然)(70x135cm)



심대 여동한 작, 춘曉(40x135cm)



응와 이원조 작, 산용은현운아경(35x135cmx2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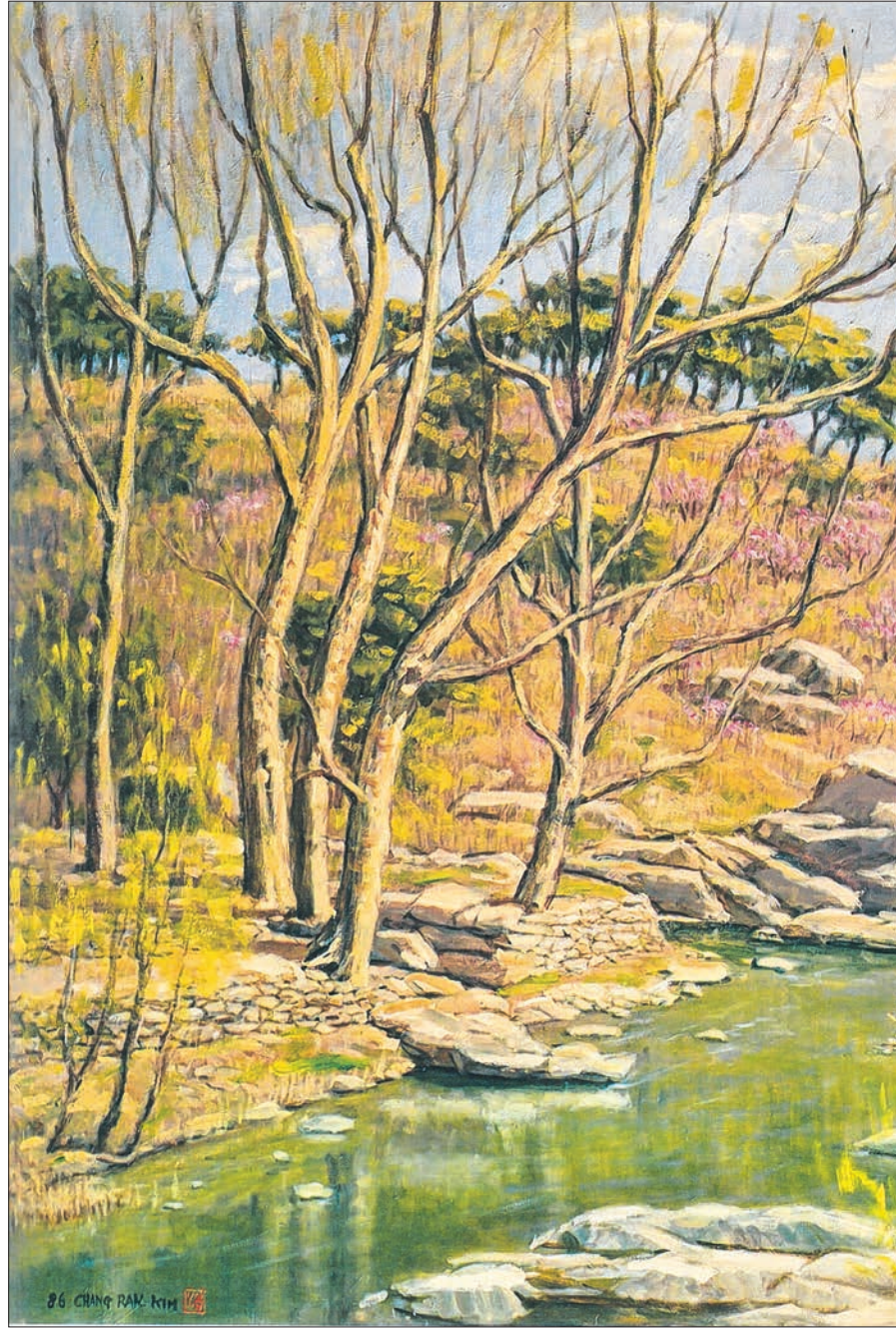
해봉 이도원 작, 심어해(35x135cm)



문상식 작, 꿈(oil on canvas 15호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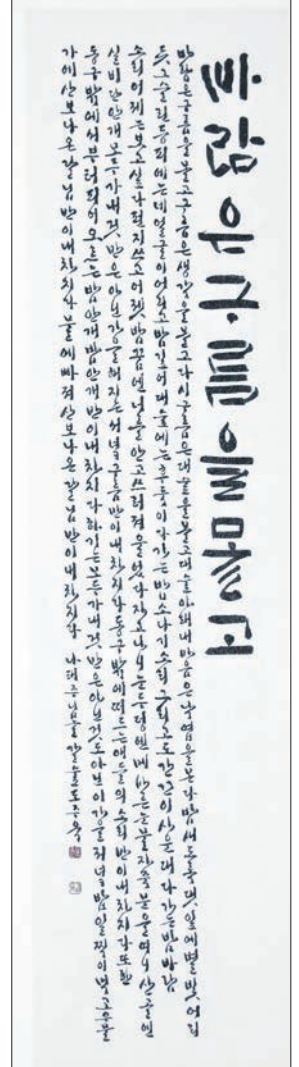
정점식 작, 形象(oil on canvas 116x91cm)



김창락 작, 진달래 필 때(oil on canvas 50(P)호)



거엄 배춘석 작, 군자불경(20x1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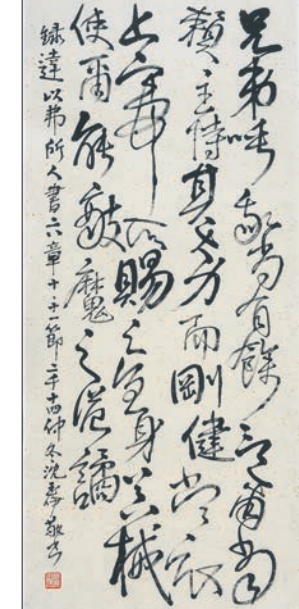
갈술 도주옥 작, 나태주님의 글(대술아래서)(60x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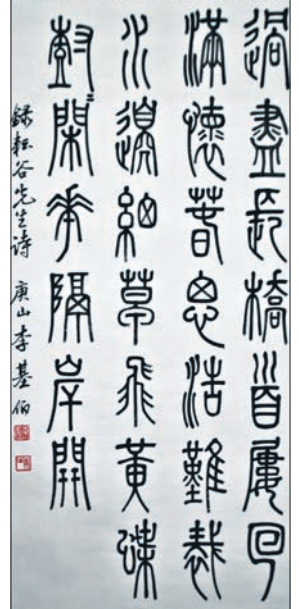
권전 이상건 작, 명심보감(35x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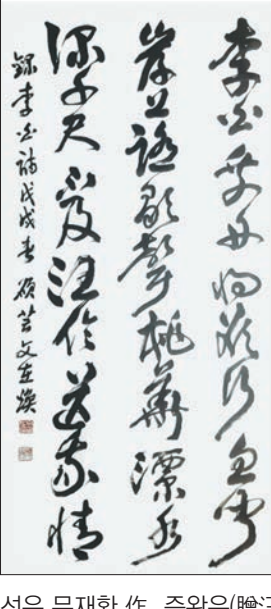
회천 송홍래 작, 대련(對聯)(35x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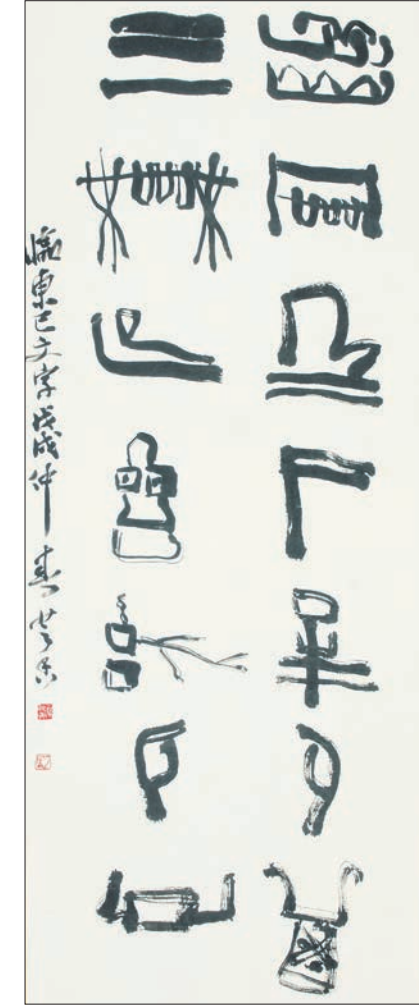
동원 심욱이 작, 兄弟乎我(70x135cm)



경산 이기백 작, 根幹先生詩(66x135cm)



석운 문재환 작, 증왕윤(贈汪倫) 이백(李白) 선생시(70x140cm)



지항 이은영 작, 임 동파문자(臨東巴文字)(50x135cm)



성남 주병환 작, 구학성령가수필산지배양전심집(40x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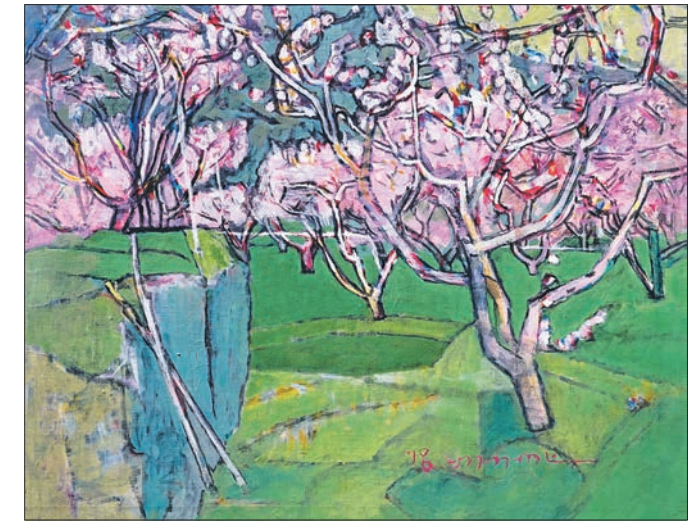
김승국 작, 상생의 손(브론즈, 포항호미꽃)



김성수 작, 꽃과 사람과 새(나무 Acrylic 가변설치)



배영철 작, 사라져가는 것들2000~F(144x96cm)



배기찬 작, 고원1(Acrylic on canvas 72, 7x60, 6cm)



이수동 작, 무제(oil on canvas 162x1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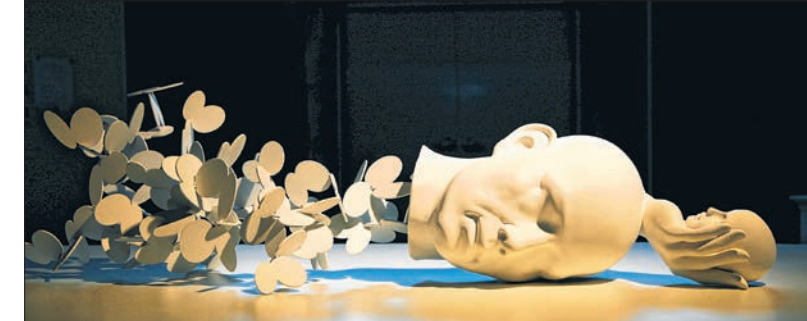
백암 류광덕 작, 가야산정경(수묵채색 200x460cm)



백규 작, 금오산, 현장에서 작품(oil on canvas 90x38cm)



최양동 작, 해바라기(water color on paper 20x30cm)



최부윤 작, After Dark-01(urethane painted on steel and FRP 160x57x36cm(h))



곽철백 작, 풍속일경(132x93, 2cm)



이명수 작, 樂在其中(서각 48x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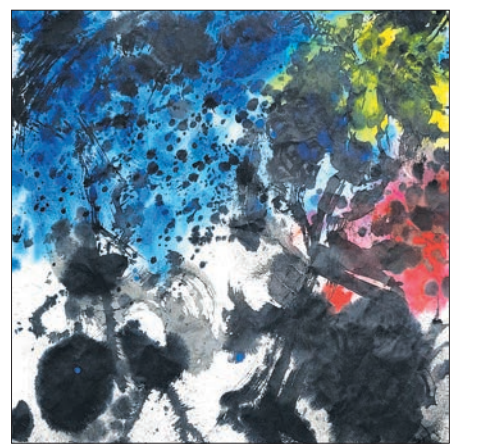
이명재 작, 작업(한지종이죽, 명석, 지름 183cm)



문승옥 작, 윤슬(oil 100x80cm)



김해경 작, 한가한 오후(oil on canvas 60x50cm)



이해동 작, 별유전지비인간 別有天地非人間(한지 먹 혼합재료 75x73cm)



대구경북 신공항 홍보 프로젝트

비행기타고

11. 27. SAT - 12. 11. SAT

5회차 플래시몹 참가자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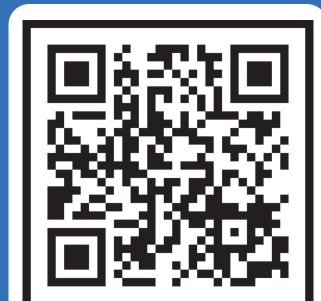
12월 11일(고령, 청도)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비행기타고 (@bihaenggitago)

 비행기타고

문의 : 010-2318-8808



 공식 SNS 채널

23국 오미크론 변이...유럽 다시 봉쇄 위기

연말연시 각국 방역 비상

英 246명·덴마크서도 261명
獨 미접종자 모임 인원 제한
佛 '증명' 없으면 식당도 못가
규제 강화하자 반대 시위 격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예년 같은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할 시기를 앞둔 유럽이 다시 록다운(봉쇄) 위기에 몰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현재 세계 52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만 23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 영국 보건안전청(HSA)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총 246명의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확인됐으며, 덴마크에서는 이날까지 총 261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도 늘어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은 더 강화된 규제를 내놓고 있다. 독일은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에게만 상점이나 문화·여가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은 자신의 식구 외에 다른 가구 소속 2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했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말에는 폭죽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은 연말 방화회 표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전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65세 이상은 올해 12월 15일부터, 18~64세는 내년 1월 15일부터



美 백신 접종 의무화...항의하는 시위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 뉴욕시가 민간기업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힌 가운데 해골 모양 '자유'의 여신상' 처림의 시위대가 뉴욕 도심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터 백신 2차 접종 후 7개월 안에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맞지 않으면 '보건증명서'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보건증명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극장에 갈 수 없고 대중교통, 항공편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는다. 또 4주 동안 나이트클럽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개인적인 파티도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벨기에에는 초등학교의 크리스마스·새해 방학 시작을 1주일 앞당기고, 중등학교는 절반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도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실내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경기장 등에 입장할 수 없게 했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오후 5시부터 카페,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등 야간 통금을 도입했다. 13세 이상은 집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 필수 목적 외 통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이며, 내년 2월부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가 더욱 강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4일 4만명이 넘는 인파가 수도 빈 거리를 메운 채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는 5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방역 정책을 규탄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中 무역제재에 리투아니아 "EU가 해결 나서달라"

"유럽연합 무역 정책에 영향" EU-中 갈등 불씨될지 주목

중국이 친(親)대만 행보를 보이는 리투아니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맞서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지난 5월 중국과 중·동유럽 국가 간 '17+1 경제협력체'를 탈퇴했고, 6월에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달에는 리투아니아 의회 대표단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의회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만나는 등 의원 외교를 펼쳤다.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급속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 이어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세관의 수입국 목록에서 아예 리투아니아를 삭제해 리투아니아

의 모든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그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서한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 EU 회원국뿐 아니라 EU 전체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EU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의 제재로 리투아니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EU가 적극적인 인복 조치에 나서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EU의 최대 교역 상대이며 교역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진주만 공습 80주년을 앞두고 7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 정치인 또 역사 반성 없는 도발 여야 의원 99명 야스쿠니 집단참배

'국회의원 모임' 2년 2개월 만에 韓 외교부 "깊은 우려와 유감"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7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소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19년 10월 18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집단 참배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총의원 68명, 참의원 31명으로 총 99명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우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로 경제산업성 부대신과 무타이 슈스케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다.

이 모임은 매년 야스쿠니신사의 춘계(4월) 및 추계(10월) 예대제와 태평

양전쟁 종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단 참배를 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엄중히 지적한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야스쿠니신사를 무릎 꿇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며 "이것은 반성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힝야 "미얀마 학살 방조" 폐북에 177조 손배소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집단학살 방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AFP, 블룸버그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 소장이 6일(현지시간) 접수됐다.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천500억달러(약 177조원)에 달했다.

가디언은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에 있

는 로힝야족 1만명 정도를 대표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로힝야족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미얀마)에서 시장 침투와 로힝야족 생명을 맞아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혐오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들었다.

법인부동산

광고문의 및 접수 ▶ T.053)656-4448 / F.053)656-1118

법인부동산

부동산시장의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평수를 국제 규격인㎡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토지 취득 자유화) ※평을㎡로 환산하려면 1평 = 3.3058㎡입니다.

서 구

(주)대동부동산 (호천동, 서구594-8200)가-13-2141

성서4차 공장매매

대4,300㎡, 건3,700㎡, 층고11M 크레인4대 053)284-0115

자연녹지

옥포 김흥리 농로길, 건축가능, 1111㎡(336), 이적취친원(당80)매물접수 053)284-0118

땅! 송현동

2층빌라 20x8M 720㎡, 당1750만, 다용도매물접수 053)284-0118

통상가

대2380, 건1930, 대도로점면1250, 72억 프랜차이즈 대595, 건850, 면1100, 대로42억 010-2509-9996

관리지역 고품급

2차선점, 6790㎡, 당333만 053)284-0076

★거창명품사과

과수원 "금" 약3,200㎡, 매3억5천(기계값만 약1억) 농기계용역(동만가면) 053)284-0188

청통IC5분거리 땅!

계획관리, 7800, 다용도(공장, 전주, 물류)분할가능, 당43만 053)284-0136

대동부동산

영원동, 서구561-4032(2170-2016-00067)

카

모텔3억인수(유) 동구 대870㎡, 218, 주택3, 파계사교항가 카모텔, 대구19, 대1000㎡ 시설 매출양호, 14억인수(유) 561-6561

관

호철, 23억인수, 대구신도시(유) 대1300㎡, 통50, 매출8천이상, 16억인수(유) 대711, 통36 입대수입도 053)561-6561

모

텔, 6억인수(유) 북구, 대320㎡, 227, 리모텔1년, 매출양호 모텔, 13억인수(유) 동구, 대690㎡, R3, 홀리모텔053)561-6561

서 구

대25억인수(유) 동해안 최고위 치년매출12억이상 입대수입출 카모텔 4억인수(유) 동해안, 경주 대207, 통24실 053) 561-6561

대동부동산

김영1서구521-4948(2170-2019-00025)

모텔매매

28억 (유) 대1019㎡ 월매8천만 이상 ★매매 25억 (유) 대 983㎡, 월매9천만 이상 053)521-4949

모텔매매

40억 (유) 대950㎡ 월매9천만 ★ 모텔매매 10억 (유) 대1066㎡, 월매4500 053) 521-4949

외촌IC

인근명 "금매", IC5분거리 대도영 2차선점(7.742) 계획관리, 농림, 추천: 요양병원, 아와골프대형카페, 마구장, 전원개발 053)557-8828

청통IC

"땅" 공장부지, 임야(9800) 당5, 5천, 공장부지(1200) (1500)(3100)당63만, (1800)당55만, 대(1100)건272매가14억 053)557-8828

영리부동산

영원동, 서구594-8200(2170-2020-00012)

초역세권 시세

이하 대460㎡ 신축초대단지입구바로앞, 유동인구바라 상가주택, 18억인수 010-9355-5056

땅값이하 초급매

대355㎡, 5층 코너, 투자수익 한방에 감정가이하, 19억인수 010-9355-5056

달구벌대로 통상가

대663㎡, 초역세권, 횡단보도앞상가, 병원사육초적, 40억인수 010-9355-5056

달구벌대로 5층

통상가 대700㎡ ~, 보2억, 月1600 병원, 사육초적 010-3851-5504

서 구

(주)삼성부동산 (호천동, 서구598-8888)가-13-1978

3350사거리코너

대757㎡, 건3600㎡, 40억인수, 대로 사거리코너점, 서구최유지 010-6547-4488

1억2천약국병원

빌딩 대1977㎡, 건14430㎡, 110억인수, 지하철출입구점상인도최유지 010-6547-4488

2000약국병원빌딩

대663㎡, 건1450㎡, 25억인수, 대단지 아파트 정문 최유지 010-6547-4488

동대구역 땅! 땅

대1350㎡ 당1900만 45억인수, 초급매, 지하철철 최유지 병원 사육 커피숍적지 010-6547-4488

3100주유소커피숍

대3230㎡, 건2000㎡, 40억인수, 대로사거리코너최유지 010-6547-4488

4천, 천중병원빌딩

대1500㎡, 건6300㎡, 40억인수, 신축 천중병원입주10년계약 010-6547-4488

서 구

(주)삼성부동산 (호천동, 서구598-8888)가-13-1978

1700, 5층 통상가

지하철역앞, 대177, 건560, 보3억, 용자 안고, 30억인수, 금매 053) 527-9955

520, 4층 통상가

수성구, 보1억5천, 용10억안고 10억인수 053) 527-9955

주상복합신축부지

대구북구태전동, 근생 제2층, 11,970㎡ 약400세대, 용량800억 010-7678-8062

아파트 신축부지

대구동구신현동, 근생 제3층 9,890㎡, 약 240세대, 용량420억 010-7678-8062

공동주택부지

대구 남구 대명동, 제2층 5,430㎡, 약300세대, 용량536억 010-7678-8062

공동주택부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상업지역 3,560㎡, 약180세대, 용량370억 010-7678-8062

공동주택부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반업무시설용지 4,980㎡, 약 216세대, 용량410억 010-7678-8062

공동주택부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상업지역 7,900㎡, 약 564세대, 용량220억 010-7678-8062

5층 통상가

대지852㎡, 대로40m점 초역세권주도로최유지, 연5%수익률 月1690만, 25억인수 053) 557-9770

1층 통상가

대지497㎡, 교통중심상업, 월매출6천만, 직접운영, 교통가능, 27억인수 053) 557-9770

구분상가 3칸

대지327㎡, 대로30m점 현재 편의점 관련업체 입점, 장기계약 月330만, 용량13억5천 053) 557-9770

신축상가원룸

대지215㎡, 넓은주차장, E/V, 有, 사통팔달, 주인살고 月410만, 용량13억 053) 557-9770

4층 상가주택

재개발(최유지)코너상가, 울리모텔 月582만, 용량16억5천 053) 557-9770

3층 상가

아파트입구 최유지, 주동로상가추천함! 月370만, 용량13억 053) 557-9770

모텔 급매

대252, 방33, 매25억 대345, 방34, 매73억 010-8029-8118

중 구

(주)대동부동산 (호천동, 서구594-8200)가-13-2141

2700, 5층

통상가, 대로변 대820, A급상권 A급신축건물, 임대료인상가능, 세용안고 인수가35억, 동성로상가전문 422-3305

달구벌

대로, 명동(당단지) 입구 최유지 코너, 개발추진 시세차익, 대1720, A급상권, A급분화기 세안고, 인수가175억 053) 422-3305

수 성 구

(주)대동부동산 (호천동, 서구594-8200)가-13-2141

최신부동산

대동부동산 (호천동, 서구594-8200)가-13-2141

황금태왕아너스75

귀한명품아파트, 전방 좋은집 매매 최신부동산 741-0070

동 구

(주)대동부동산 (호천동, 서구594-8200)가-13-2141

※급매 자연녹지

서대 구역, 3500, 물류창고 투자200%, 당350만 상당원형, 전속중개 053)744-6767

급! 매물 혁신도시

서대 구역, 1100, 당30만 (분할가능) 도로점 010-7127-6776

급매! 주유소

대460, 매13억5천 영천산도로 직전 요지 053)744-6767

19면 계속

대구경북 질병 입원 '노년백내장' 최다...외래는 '치주질환'

(3만5천183명)

(141만3천188명)

지난해 지역 질병 통계 분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면 '건강'이라고 답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이들 일수록 건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입을 모은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을 막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꼼꼼히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건강기능식품까지 챙겨먹고 운동까지 부지런히 해도 우리 몸은 노화하면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대확산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하는 요소다.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데다, 아파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심리가 생겨났고,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려오던 건강검진 수검률마저도 지난해 소폭 하락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만이 병을 키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굳이 진료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지역 병·의원에서 충분히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입원 일수 치매 184.20일로 최장
1인당 비용도 2,949만원 '눈덩이'
무릎 관절증 진료 44만5천원 최고**

◆2020년 대구경북민 가장 많이 걸린 질병은 지난 1년 동안 대구경북민들이 가장 많이 걸린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과 위장염 및 결장염, 외래 진료에선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급성 기관지염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흐려져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전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다.

매일신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구경북 지역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입원 분야 환자 수는 노년백내장이 3만5천1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감염성 및 상해불명 기타 위장염 및 결장 △상해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타 추간판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등의 순으로 각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로 따졌을 때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84.20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이 74.10일로 길었다. 다음으로는 무릎관절증 22.28일, 요추 및 골반의 골절 21.17일, U07의 응급사용(코로나19 감염증) 20.49일 등의 순이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가 2천949만원으로 가장 많은 1인당 진료비를 지불했고, △뇌경색증 2천542만원 △무릎관절증 1천455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 수에서는 10위 밖이었지만 △담석증 985만원 △협심증 960만원 △급성 충수염 725

2020년 대구경북 지역 다빈도 질병 통계

대구경북 입원 기준

질병 명칭	환자수(명)	내원일수(일)	총 진료비(백만원)	1인당(원)
노년백내장	35,183	56,285	54,680	3,083,559
감염성 및 상해불명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0,046	87,115	19,553	1,960,013
상해불명 병원체의 폐렴	17,205	219,674	59,283	6,891,225
기타 추간판장애	16,845	134,479	31,257	3,665,003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6,357	3,012,953	243,382	29,498,159
뇌경색증	13,234	980,690	171,952	25,426,894
무릎관절증	11,562	257,598	85,845	14,553,668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11,192	31,075	14,790	2,598,188
요추 및 골반의 골절	9,041	191,413	30,361	6,715,919
어깨병변	8,668	78,250	26,280	5,853,666
협심증	8,577	46,514	41,708	9,605,686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8,385	137,844	22,468	5,345,129
담석증	8,173	64,704	39,993	9,854,666
기타 척추병증	7,320	104,976	20,494	5,506,410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7,318	112,845	25,766	7,031,504
급성 충수염	7,178	39,344	26,020	7,253,805
어지럼증 및 어지럼	5,970	14,767	4,558	763,491
U07의 응급사용(코로나19)	4,815	98,680	22,469	4,666,422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4,409	15,125	4,141	939,234
복부 및 골반 통증	4,158	10,019	3,307	795,241
2형 당뇨병	4,068	75,102	9,897	2,432,873
무릎의 내부장애	3,76	36,699	8,939	2,373,538
아래팔의 골절	3,248	35,415	9,653	2,971,849
신장 및 요관의 결석	2,975	9,326	4,929	1,656,918

대구경북 외래 기준

질병 명칭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1인당
치은염 및 치주질환	1,413,188	2,655,229	118,364	166,500
급성 기관지염	966,937	2,618,757	43,231	89,43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71,734	5,000,579	102,688	305,072
치아우식	584,443	1,007,031	49,917	170,704
위·식도역류병	498,952	1,169,264	37,361	149,75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489,293	1,138,032	20,164	82,423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476,267	982,499	16,895	70,815
등통증	468,738	1,906,509	67,946	291,623
위염 및 십이지장염	397,570	711,434	23,314	116,81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380,130	1,323,845	55,774	293,041
결막염	369,433	629,618	14,079	76,114
무릎관절증	339,422	1,898,901	75,420	445,620
2형 당뇨병	323,272	2,339,739	63,664	394,059
다발성 및 상해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287,139	532,025	9,195	63,997
급성 편도염	277,527	518,236	8,818	63,4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276,134	675,686	16,824	122,478
감염성 및 상해불명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69,856	405,663	12,588	93,298
어깨병변	256,431	1,186,730	42,300	329,869
급성비인두염(감기)	183,322	400,163	5,471	29,843
복부 및 골반 통증	137,079	207,402	18,225	132,952
눈물계통의 장애	126,271	247,096	6,973	55,222
두드러기	119,713	247,525	5,001	41,77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원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703만원 등의 순으로 병원비 지출이 컸다.

외래 분야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141만3천18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아우식 △위·식도 역류병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의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하지만 1인당 진료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무릎 관절증(5,591원)이 44만5천원, 2형 당뇨병(7,231원)이 39만4천원으로 가장 비용 지출이 큰 외래 질환으로 꼽혔다.

◆심평원이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은 다빈도 질병에 대한 우수 의료기관(1등급) 평가에서 대구지역 4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됐다.

심평원의 폐렴, 위암, 대장암,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등 5개 평가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폐렴, 위암, 대장암,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5개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얻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1등급이었다.

**5개 항목 1등급 대구 5곳·경북 1곳
고혈압·당뇨 진료 평가 양호기관
포항 129곳·경산 65곳 등 선정 돼**

이 밖에 폐렴 평가에서 천주성삼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중구), 칠곡가톨릭병원, 광병원, 대구의료원, 구병원, 대구보훈병원이 우수 의료기관에 포함됐다.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에 대한 대구지역 병·의원 양호기관은 모두 664곳(고혈압 368곳, 당뇨병 296곳)으로 지난해 619곳에 비해 7.3%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13곳 △북구 103곳 △수성구 98곳 △서구 80곳 △달성군·남구 47곳 △중구 34곳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취약했다. 5개 심평원 평가항목 중 안동병원만이 위암, 대장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4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폐렴은 경북 23개 시·군에서 15개 병원, 급성기뇌졸중은 9개 병원이 추가로 1등급을 받았다.

경북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은 572곳(고혈압 352곳, 당뇨병 220곳)으로 포항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65곳, 경주 60곳, 구미 55곳, 영천 37곳, 안동 30곳, 영주·칠곡 23곳, 상주 22곳 등의 순이었다.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황대는 심평원 대구지원장은 "다빈도 질병 통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연계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병원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윤조 기자 hanyunjo@maeil.com

'우리 지역 좋은 병원' 한 눈에 보여드려요

심평원 홈페이지서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 요양급여 적정성 1등급·양호기관 정보 제공

몸이 아프면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어느 의사에게 찾아가야 하는가이다. 블로그나 SNS를 검색 해봐도 광고 글만 넘쳐난다. 어느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해주고, 바가지를 쓰우지는 않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절실하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제공하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 동네에서 진료 잘하는 '좋은 병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황대는 심평원 대구지원장은 "사실 경쟁 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역에도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많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이나 양호 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좋은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정보 >지역의료정보 경로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에서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다운 받아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17개 분야 질환별 찾기와 난임시술의료기관, 요양병원, 응급의료기관 등 5개 분야 의료기관별 찾기 결과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 지원장은 "대구에는 특히 4개 의과대학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의료진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에 기반을 둔 최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좋은 병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안심하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조 기자

다빈도 질병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1등급) 명단

대구		경북	
위암·대장암·급성기뇌졸중(6)	폐렴(13)	급성기뇌졸중(10)	
경북대병원	중구 경북대병원	중구 경북대병원	중구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남구 대구가톨릭대병원	남구 대구가톨릭대병원	남구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남구 영남대병원	남구 영남대병원	남구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수성구 대구보훈병원	달서구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김천의료원	김천 김천의료원	포항 포항세영기독병원	김천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포항 포항의료원	포항 포항세영기독병원	포항 포항세영기독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	구미 구미차병원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
상주 상주직접심사병원	상주 상주직접심사병원	안동 안동성소병원	안동 안동성소병원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구미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청도 에스포항병원	안동 안동성소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 안동성소병원	울진 울진의료원	김천 김천의료원
영남대 부속 영천병원	영천 영천의료원	계명대 부속 경주동산병원	안동 안동성소병원
			포항 포항세영기독병원
			구미 구미차병원
			포항 에스포항병원

대구에서 듣는 오리지널 버전 '대성당의 시대'

10~26일 '노트르담 드 파리'

대사 없이 노래로만 54곡 선보여 예술 경지 최정상급 배우들 출연

스튜디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프랑스 배우들의 프렌치 오리지널 버전으로 10일(금)부터 26일(일)까지 계명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맞는다. 지난해 '프랑스 초연 20주년 버전'으로 5년 만에 한국을 찾아 화제를 모았던 그 공연이다.

1931년 발표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가 탄탄한 줄거리를 잡는다. 이탈리아 작곡가 리카르도 코치안테(Riccardo Cocciante)의 낭만적인 음악, 극작가 루크 플라몽돈(Luc Plamondon)의 가사, 시선을 압도하는 무대 세트, 고난도 아크로바틱 댄스가 한데 어우러진다. 파격적 예술의 경지를 뚫는 감상성이 여색하지 않다. 관객객 수도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 23개국, 1천500만 명을 넘었다.

국내 뮤지컬계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다. 특히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뤄진 '싱스루'(Sung-through) 뮤지컬이다. 첫 곡인 '대성당의 시대'(Le temps des cathedrales)부터 파지모도가 죽은 에스메랄다를 안고 부르는 '춤춰, 나의 에스메랄다'(Danse mon Esmeralda)까지 모두 54곡의 '뮤지컬 넘버'가 관객의 귀를 자극한다. 공연의 역동성을 배가하는 무용수의 춤도 관객의 눈 호강을 돕는다.

세계 최정상급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내한공연에 참여했던 베테랑 배우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파 배우가 더블캐스팅으로 나선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꼽추 중지

기 '파지모도' 역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의 안젤로 델 베키오와 막시밀리안 필립이 나선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만인의 연인이 되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역은 엘리아다 다니와 쟈프 보노가 나눠 맡는다.

'대성당의 시대'로 공연의 막을 올리는 음유시인이자 극중 해설자인 '그랭구와르' 역에는 리샤르 샤레스트와 존 아이젠이 출연한다. 리샤르 샤레스트는 '노트르담 드 파리' 무대에만 1천150회 넘게 오른 베테랑 배우. 2005년 서울 공연부터 무대에 올라 국내 뮤지컬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권위적인 주교 '프롤로' 역은 프랑스 국민가수 다니엘 라부아와 솔랄이 연기한다. 집시들의 왕이자 에스메랄다의 보호자인 '클로팽' 역은 제이와 이삭 엔지가, 파리의 근위대장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페뷔스' 역은 지안마르코 스기아레피와 존 아이젠이, 페뷔스의 약혼녀인 '플로르 드리스' 역에는 엠마 르핀과 쟈프 보노가 관객을 만난다.

8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50분(인터미션 20분). VIP석 16만원, O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공연시간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 6시/ 12월 24일(금) 오후 3시, 7시 30분/ 12월 26일(일) 오후 2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문의 053)422-4224 (과외포함).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버전 공연

DIMF 감동 다시 한번



제15회 DIMF 페막콘서트 모습.

DIMF 사무국 제공

12~13일 뮤지컬 갈라콘서트

지난 공연 흥행 주역 한자리 다양한 레퍼토리 구성 공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가 연말을 맞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두 편의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연다. 12일(일) 오후 5시 'DIMF 뮤지컬스타 콘서트'와 13일(월) 오후 7시 30분 'DIMF the Concert (딤프 더 콘서트)'다.

두 공연 모두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와 DIMF가 발굴한 차세대 스타들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12일(일) 오후 5시에 열리는 '2021 DIMF 뮤지컬스타 콘서트'는 올 7월 막을 내린 '2021 DIMF 뮤지컬스타'의 주역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대상을 차지한 김태희(국립전통

중), 최우상수 수상자 최하람(New England Conservatory), 대회 이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활약 중인 이재림(중앙대), 팔색조 매력으로 호평받은 최희준(홍익대) 등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차세대 스타들이 호흡을 맞춘다.

13일(월) 오후 7시 30분 열리는 'DIMF the Concert'(딤프 더 콘서트)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펼치는 레퍼토리와 캐럴의 향연이다. 최정원, 마이클리, 민우혁, 장소영 음악감독이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DIMF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당일 노쇼나 취소표 등으로 좌석이 생기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문의 053)622-1945. 김태진 기자

바리톤 전중욱 귀국독창회 17일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바리톤 전중욱의 귀국독창회가 17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에서 열린다.

전중욱은 경북대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 그리고 동 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무대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성악가이다. 특히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전중욱

재학 중 빌헬름 극장에서 모짜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마제포 역을 시작으로 독일 바덴 바덴 극장, 하일브론 극장, 브레머하펜 시립극장 등에서 수많은 작품에 주·조연으로 출연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중욱은 "이번 독창회 연주를 통해 제 목소리만의 깊이와 매력을 오롯이 담아 관객에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찬홍 기자 apolon@imaeil.com

법인부동산

달서구

★대구최대부동산★
공정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정임대, 매매 최다건물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급매성서업무시설 용지
대830㎡, 당650만
010-9973-0097

★영천 공장매매★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대46671㎡
건5401㎡, 평당가46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1400㎡, 건495㎡, 고4M
당40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3000㎡, 건2214㎡, 고5M
당45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6700㎡, 건5500㎡, 고9M, 크레인15대
동력500kw, 당480만 010-9973-0097

★왜관 소재매매, 대1029㎡
건305㎡대로변, 핫플레이스
추천(산강공원)가운잡, 스타벅스, 투썸베이커리, 스킨골프, 당800만 010-9973-0097

일반부동산

북구

■더블라지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스크린 운영상가 건물 매매
580㎡, 최신8대, 매출4천이상, 인수9억
오토운영, 손수익32% 010-7437-5535

■공터라공인(정영숙, 북구)가-2018-0005
지천
금호리 (물류·C인근) 대810, 건200, 대구경북
전지역경매공판상당 010-6727-7078

★천평공장분양★
대140, 건80, 대190, 건100, 평수다양
즉시입주가능 010-6727-7078

★급매동명물류창고
대지1752㎡(530), 건1322㎡(400)
즉시 입주가능 010-6727-7078

남구

■천마부동산(조성진, 남구)가-11-2014-12
★달구벌대로 땅★
대904㎡, 당3900만, 금매
010-4000-1573

동구

★대로점 땅★
2120㎡, 당1400만, 금매
053) 942-4080

수성구

■유명공인(박성현, 수성)가-2016-00126
8900만 220억인수(대출80%가)
대1250㎡, 건9500㎡ 프랜차이즈
병원, 유명학원, 금공, 대기업, 대형커피숍
대구최고상권, 유동인구최상, 공, 보인고

대형인도어, 연매출15억가격의(대출80%
%가대12925㎡(비거리최장, 고객만원 상
권)출고, 위치 아주좋은, 스킨, 상가포함
주차120대, 아파트밀집 010-3701-0772

1400, 통상가, 47억 대출80%, 수성구
대6600㎡, 유양커피숍, 대기업프랜차
이즈, 인근주차충고, 지하철, 상권좋은, 유
동인구, 코너, 대단지열 010-3701-0772

■리나스트림(유진, 수성)가-2017-00196
2220㎡, 51억, 대753.7㎡, 건3593㎡
도35x15, 0대단지상권, 휴대론 한
의원회복기회, 약국 병원할복, 1.5층상실
보3억3천+용31억인고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 수성)가-16-3703
매59억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
방문상당 요망! 010-2714-1155

범어 롯데 61
R층, 22억, 1.1억입주
010-3509-4725

2층통상가
존신식, 160㎡, 개발
호재, 매10억/3층
상가주택, 대로접, 개발호재, 250㎡, 당2천
※식당임대, 최요지, 30'010-9219-0481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대입원 등기, 문화재청 허가
■구궁 태극성명(의) 중앙의왕
■아름답게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직명, 개명
■불행은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복수법
으로 개명하여 복(성명표 특허출원)
■노벨대상 후보 추천
■'동도 한가' 장사, 손기복, 동동대대구 직사
대구수성구청 152-60극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8

매110억
부3.5억, 용60억
46.5억 인수
월3,200만 출,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황금랜드(서태영, 수성)가-2016-00020
남구대단지(08밀집지역)
월550출
코너, 병원입점, 안정된
수익, 인근대단지(08재건축임박, 향후투자
수익확실, 용량21억 010-8632-3100

■보달공인(이미희, 수성)가-2017-00015
전면 좋은 신축상가 원룸
황금역
주인집 방4칸, E/V, 코너
카페, 체인, 사무실, 261.4㎡/ 522.69㎡, 보
용안고10억인수, 월730출 053)761-2775

수성구

동남부동산(김호재, 수성)가-16-1501
직원모집 37년전통
유튜브전문 직원 우대 모집합니다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
방문상당 요망! 010-2714-1155

2층통상가
존신식, 160㎡, 개발
호재, 매10억/3층
상가주택, 대로접, 개발호재, 250㎡, 당2천
※식당임대, 최요지, 30'010-9219-0481

남구 역세권 통상가
325㎡, 역세권, 배후지재개발, 건물개조
E/V, 월870만, 매35억 010-8030-7069

★월1000, 3층통상가
역세권대로접, 유명정성업, 투자유망지역
상업143', 인수20억 010-6630-8648

월550
대로 코너상가, 대단지입구
환원건물, 대75, 용량20.5억
월620
역세권대로접, 유명채안점
최고상권, 대100', 매24억

월550
역세권대로접, 유명채안점
시세이하, 상업120', 매19억
수성구
통상가, 0대단지, 핫상권
용량17억 010-6630-8648

수성구 신축소형주택
월200출, 민촌역세권, 소액투자천천, 매10
억, 자부담2억2천인수 053)762-6688

수성구 신축상가주택
월400출, 수성구청 역세권, 경신고입구
매19억, 자부담8억인수 053)762-6688

범어동 신축상가주택
월400출, 수성구청 역세권, 경신고입구
매19억, 자부담8억인수 053)762-6688

대화 동남공인(최희수, 수성)가-2018-00131

수성구

★급 상권 최고상가
월1,650, 대로코너, 대1,400㎡, 명품입
점 상업중, 32억인수 053) 751-4343

월2,200 내과빌딩
대600㎡, 아파트앞 ※ 35억인수
053) 214-8816

월2500 최요지상가
상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가26억 053) 742-8383

현대인공(김희진, 수성)가-2020-00004
서부정류장역세권 상
가
상업지역, 대18, 연450, 매52억(병원 개
인용도 건물사용하실분) 054) 956-9082

시내 중심상가
신축가능 상가부지, 대150, 대출35억
매60억 054) 956-9082

★금강부동산(이민호, 수성)가-2020-00122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월905만
20억, 최고의 상권 053) 762-6100

스타벅스 월2,100
25억 인수, 사거리코너, 장기계약
특급상권 010-5683-6100

달서구

★동우부동산(류진수, 달서)가-2020-00152
★4층 통상가
대229
건490

달성군

■다산동공인(박영숙, 달서)가-2020-00005
공장매매 IC3분, 대875, 건136
고8M, 당98만

경산시

■365부동산(정승규, 경산)가-2018-00140
7층통상가, 달구벌대로접
상업지역, 대331㎡
건1,379㎡, 보1억6천, 월1,600출
용량55억 010-5204-1119

고령군

성주군

성주
1차 일반산단 자원부지 매매
대228, 당260만, 원룸, 식당
다용도, 전면25m, 인도10m(철만 분
할매매, 대출3억(용)054)933-9944

벽진 불학리(선학동) 1670:당18만
(3억) 청정지역, 분할후 천원
주택가능, 귀촌자 환영, 도로보다지대
높고주위전원주택밀집 054)933-9944

월항 (인촌리) 주택매매, 대188
건18: 용량1억3천, 청남향
지대높고 전망최고, 신석사, 세종대왕
대실 인근마을 054)933-9944

선남면 문방리 계획관리
금매, 630
용량1억, 용량10분거리, 주말농장적
지, 초매매, 1분모입니다 054)933-9944

가천면 중산리 (계획관리)
금매, 1350, 당17만
성주읍근처, 가산정성이한눈에들어
오는 전망좋은 땅, 지하수유 933-9944

고령군 덕곡면 (계획관리)
4540, 당17만, 가산
들어가는 입구, 오토캠핑장가능, 투자
다용도, 시세보다저렴 054)933-9944

성주읍 (학산리) 계획관리, 임야, 전
매매, 12000:당15만, 조경
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하실분, 발걸음
아, 한채조경수식재, 투자환영 933-9944

청송군

■주왕산공인(조영태, 청송)가-4228-34
청송읍내 집지을 땅
청송읍금곡리, 사과밭 968㎡, 는1,160㎡
2,128㎡, 매9,700만 054) 873-3388

의성군

※상가 매매 2억2천만
의성군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월90만출
1칸공실 010-4507-7849

삼성-선수 치열한 눈치싸움...FA 3명 다 잡을 수 있을까

〈강민호·백정현·박해민〉

1호 계약 한화 최재훈 54억
협상 금액 재조정 기류 관측
구단 측 "내년까지 길어질 듯"

삼성라이온즈와 내부 FA 선수 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포수 강민호, 좌완 에이스 백정현, 국가대표 중견수 박해민 등 3명이 FA 시장에 나왔다.

삼성은 이들 3명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형국이다. 결국은 금액과 보장 기간, 두 가지 조건에서 서로 만족할 의견 합치를 이뤄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삼성은 7일 새 외국인 투수 알버트 수아레즈 영입을 공식 발표하는 등 비시즌 전력 재정에 나서고 있지만 FA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삼성 뿐만 아니라 타 구단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과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 모두 여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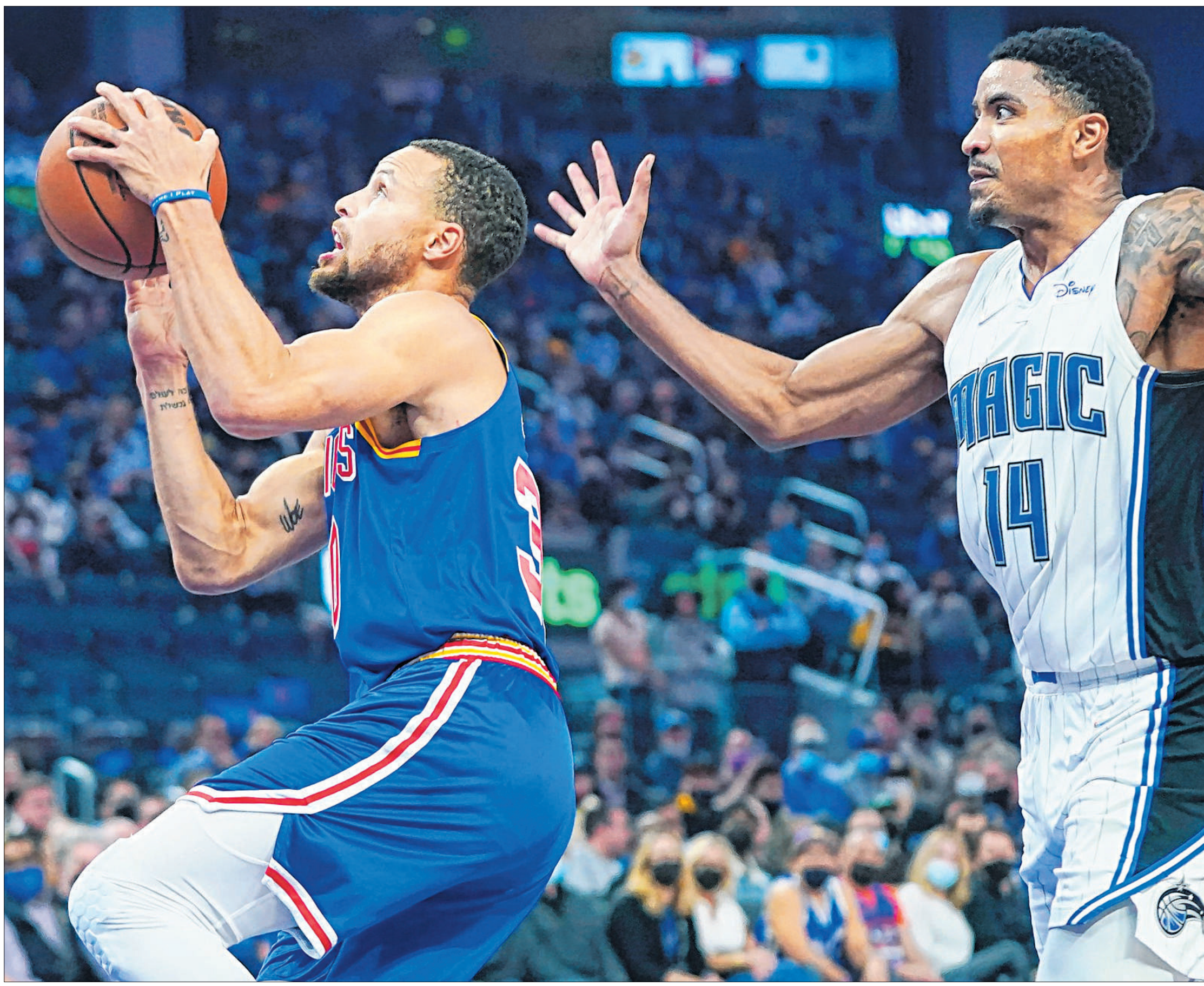
이미 지방의 A, B구단이 삼성 FA 선수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구단은 외야수 박해민에게 관심이 있고, B구단은 포수 강민호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A구단은 외야 자원이 약하고, B구단은 강민호가 해당 팀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소문과 맞물려 삼성이 FA 계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올해 1호 FA 계약을 따낸 한화 이글스 포수 최재훈이 5년 최대 총액 54억 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협상 금액을 재조정하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최재훈의 몸값이 올 FA 계약에서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FA 시장에 나온 강민호, 백정현, 박해민 등 3명은 올 시즌 삼성의 성적 반등에 큰 공을 세웠다. 내년 더 큰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수들이다.

특히 삼성은 좌완 최재훈과 포수 김도환이 곧 상무에 입대하는 탓에 당장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기폭이나 주전 포수 자원이 적은 삼성으로선 강민호는 꼭 필



막기 힘든 커리의 활약...뒤통수라도 확?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프 커리(왼쪽)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올랜도 매직과의 2021-2022 NBA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3점 7개를 포함해 31점에 8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펼쳐 팀 승리(126대95)를 이끌었다. 골든스테이트는 20승4패로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달렸다.

요한 데다 좌완 선발 자원 최재훈마저 빠지면 백정현도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박해민도 중견수 수비와 팀의 리드오프로서 활약을 감안하면 잡아야 한다.

구자욱, 김상수, 원태인, 오승환 등 동료 선수들 역시 이례적으로 직접 구단을 향해 내부 FA 선수들을 모두 잡아달라고 목소리를 낼 정도다.

삼성은 우선 3명의 선수를 모두 잡는데 주력하겠지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달(12월) 안으로 협

상을 모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선수들 역시 외부 FA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입장인만큼 내년까지도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

인다"며 "원만히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최재훈 다음 FA 계약 선수가 나온다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maeil.com

김동엽 "의욕 앞서다 부상...마음 다잡기 주력"

부상 털고 차세대 '거포 타자' 목표
"타격+수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



있고, 해당 시즌 60경기에 지명타자로 나서 홈런 6개에 그쳤지만 2020시즌에는 114경기 홈런 20개를 쳐내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올 시즌이 확실한 거포 타자로 자리를 잡기를 바랐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부상 여파로 69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 홈런 4개로 부진했다.

그는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며 훈련해왔다. 스스로도 기대가 더 컸기에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부상이 찾아왔다"며 "조급함에 더 무리한 탓에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금방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너무 컸다"고 돌아봤다.

올 시즌 불운이 잇따랐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전력 이탈한 후 간신히 1군 무대에 복귀해 4할대 타율로 컨디션을 올려갈 시점에 KBO리그에도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발생했다. 연이어 올림픽 휴식기까지 더해졌다. 불붙는 듯했던 희망이도 긴 휴식기 동안 싸늘하게 식었다. 결국 끝까지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정말 매 경기 감도 좋았

고 자신감도 넘쳤지만 올해는 부상부터 유독 잘 안 풀리는 느낌이였다"며 "그나마 올 시즌 후반에서야 어느 정도 감을 되찾았다는 게 위안이 됐다"고 했다.

김동엽은 자신이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조급함을 잠시 내려두고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프링캠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작년 좋았던 때와 올 시즌 부진의 원인을 비교해가며 훈련을 할 예정이다.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면서 내년 시즌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생각을 줄이고 아프지 않게 원 없이 한번 해보고자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며 자신을 다독였다. 김우정 기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에서 분산 개최된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선전한 경북장애인체육회 선수단. 경북장애인체육회 제공

경북장애인체육회 메달 32개 쾌거

4개월간 전국학생체전 맹활약

경북장애인체육회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에서 분산 개최된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메달 32개(금 6개, 은 18개, 동 8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농구 종목에서 중학부 2위, 고등부 2위로 종합 준우승(구미해당학교, 사곡고, 상모중, 구미중)을 차지했다.

경북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153명(선수 100명, 임원·관계자 등 53명)이 출전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수영에서 윤서진(사방초)이 2관왕을 차지했고, 육상 임원욱(안동진명

학교), 윤부현(안동영명학교), 김재민(경북영광학교), 김경모(안동영명학교), 수영 이용희(경산고)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도 6종목(탁구, 볼링, 역도, 플로어볼, 디스크폴트, 슐런)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거두며, 4개월간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종근 경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얻은 메달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다. 4개월간의 긴 기간 동안 고생해준 경북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제16회 장애학생체육대회는 내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우정 기자

삼성라이온즈가 새 외국인 투수 알버트 수아레즈(Albert Suarez·사진)를 영입했다. 수아레즈는 내년 시즌 삼성 선발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수아레즈는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등 최대 총액 100만 달러의 조건에 사인했다. 미국 현지 MRI 촬영 자료를 토대로 국내 병원 2곳에서 메디컬 체크도 마쳤다.

삼성 외인 투수 ML 출신 수아레즈 영입

190cm 큰 체격에 땅볼 유도 수준급...몸값 100만달러 계약

1989년 생인 베네수엘라 출신 수아레즈는 키 190cm, 체중 106kg의 체격 조건을 갖춘 우투 유형이다.

2006년 아마추어 프리에이전트 신분으로 탬파베이와 계약하며 미국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했다. 메이저리그에서 3승8패, 평균자책점

4.51, WHIP 1.29의 기록을 남겼다. 마이너리그에선 통산 28승37패, 평균자책점 3.65, WHIP 1.27을 기록했다.

수아레즈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일본프로야구(NPB)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뛰었다. NPB 통산 10승8패, 평균자책점 3.00, WHIP 1.32의 기록을 남겼다.

지난 시즌 야쿠르트가 센트럴리그 1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수아레즈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5승3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했고 팀의 재팬시리즈 우승 과정에서도 6차전에서 2/3이닝 무실점 호투로 기여한 바 있다.

특히 2021시즌 포심패스트볼 평균 구속 152.8km를 기록할 만큼 속구가 강점이며 동시에 다양한 구종을 적절히 제어하는 안정된 제구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땅볼 유도 능력도 수준급이어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 적합한 투수 유형이란 평가다. 김우정 기자

대구

읍면동	아파트명	층수	㎡	매매가	매매상한	전세하한	전세상한	연락처
		구수	(전용면적)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단위: 만원)	
◇ 남 구 ◇								
대명동	동아대덕	210	72.78	17000	19000	10000	11000	운수대통령인 053-623-6233
	파크맨션	553	52.24	18000	21000	11000	12000	대명부동산 053-292-3355
봉곡동	강변코오롱하늘채	430	84.96	43000	49000	32500	36000	효성백제기아공인 053-474-1400
	대덕2차	550	113.09	34000	39000	26500	29000	귀빈공인 053-471-0059
이천동	레미안힐리스트	471	109.26	73000	80000	48500	52000	삼성공인 053-471-6009
	효성타운2차	456	108.38	43000	48000	32500	36500	
이천동	교대역월드메르디앙	361	84.61	37000	42000	26000	29000	뉴월드공인 053-473-4949
	보성상아맨션	510	84.74	40000	45000	31000	34000	제일공인 053-474-2242
이천동	희망고대성유니드	635	134.71	42000	48000	30500	34000	대성유니드부동산 053-473-8969
			84.96	35000	39500	26000	28000	
◇ 달 서 구 ◇								
감삼동	삼정브리타시용산	767	59.83	39000	43500	29000	34000	세정부동산 053-551-3377
	성당코오롱하늘채	784	85.00	45000	51500	37000	41000	동아공인 053-654-3666
대곡동	우방드림시티	2160	59.89	38000	42000	29000	33000	우방드림공인 053-522-2800
	대곡역화성파크드림위드	359	59.82	36000	41000	27500	31500	대곡역부동산사 053-642-6666
대천동	대곡우방타운	432	84.93	43000	50000	31000	34500	한마음공인 053-634-1717
	대곡역하우젠트	298	84.92	46600	52300	35000	38000	대곡역부동산사 053-642-6666
도원동	삼정래미안1	767	59.86	26000	29800	20500	24000	덕인공인 053-643-1100
	월배힐스테이트	730	84.97	46600	52300	35000	38000	행온드림공인 053-635-8440
도원동	대곡사계절타운	1200	84.97	31500	35000	24000	27000	별매공인 053-629-8866
	롯데캐슬레이크	910	116.95	35500	40500	28000	31000	롯데캐슬레이크공인 053-644-2626
두류동	별매마을	1594	49.67	13800	15800	12000	14000	한국공인 053-642-2800
	삼정그린빌	1208	59.93	38500	42000	26000	29500	삼정그린빌공인 053-651-6677
본동	그린맨션2차	672	69.43	32000	36000	22000	24000	일류공인 053-655-2112
	본리롯데캐슬2차	473	84.97	46600	52300	35000	38000	롯데부동산 053-654-1010
본리동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1단지	1036	84.88	48000	55000	35000	40000	복돌공인 053-568-6900
	보성은하	1521	59.88	27500	31000	21000	24000	e-대림공인 053-644-0078
상인동	상인e-편한세상2단지	610	101.31	62000	72000	44000	50000	제일부동산 053-635-0002
	상인영남화성타운	758	134.96	47500	53500	35000	38500	대신공인 053-637-7700
상인동	상인자이	646	84.73	53200	60500	36000	42000	대신공인 053-637-7700
	상인평광	380	125.79	70000	78000	46000	51500	
상인동	상인푸르지오	698	59.70	30000	34000	24000	27000	모아엘가우림공인 053-632-9900
	상인화성파크드림 1단지	1069	84.28	40000	45500	33000	38000	뉴참좋은부동산 053-633-2525
성당동	청구	412	84.99	31000	35300	28000	32000	평광공인 053-638-0500
	성당동터사	904	134.93	40500	45000	32500	37500	동아공인 053-654-3666
송현동	그린맨션	648	84.89	47000	54000	35000	39500	복돌공인 053-568-6900
	송현우방하이츠	834	84.96	31000	35000	23000	26500	삼성공인 053-586-8484
신당동	청구제네스	414	59.90	19500	22000	16000	18500	청구공인 053-525-3600
	한화꿈에그린	833	84.73	27500	30500	21000	24000	롯데캐슬공인 053-527-8949
운산동	용산롯데캐슬	1619	123.41	71000	81000	52500	60000	
	용산한대우방	496	59.73	19500	23000	16000	18000	청구공인 053-525-3600
월성동	월성e-편한세상	1097	84.98	60000	70000	45000	50000	미래공인 053-633-2600
	월성동코오롱하늘채 1단지	823	110.75	52000	58000	36000	42000	우주공인 053-642-5200
월성동	월성래미안	760	84.97	49000	56000	37000	42000	행온드림공인 053-635-8440
	월성보성1	1185	58.11	21500	24500	16500	18500	팔성공인 053-639-5678
유천동	대곡역화성파크드림	670	84.84	37500	42500	28000	33000	대곡역전포스코부동산 053-636-6012
	유천포스코더샵	764	59.87	30500	35000	23000	27500	동방부동산 053-637-5577
이곡동	성서2동서화성	1256	59.99	20000	24000	16000	18500	성서천지공인 053-582-0110
	성서보성화성타운	1240	59.95	17000	20000	13000	15000	은행공인 053-582-7111
진천동	한빛마을(성서주공3차)	1461	49.76	15000	16500	13000	14500	대림공인 053-583-6500
	한샘	1026	59.95	21000	24000	17500	20000	
장기동	영남네오빌	836	84.97	47000	54000	31000	36000	장기파크부동산 053-555-0550
	장기초록나라	976	59.99	30000	34000	23000	26000	백두산공인 053-525-3300
파호동	계룡리슈빌	810	84.86	53000	58000	41000	46000	AK명품공인 053-635-1155
	월배귀빈타운2	461	59.75	21000	24000	15500	17500	황금공인 053-639-4777
파호동	월배팩트스코더샵	816	128.08	63000	72000	39000	45000	대신공인 053-637-7700
	청구타운	464	59.99	22000	26000	18000	21000	The행복한공인 053-636-6400
파호동	삼성명가타운	1999	59.90	23000	26500	18500	20500	파랑새공인 053-586-3333
	성서우방유빌	347	84.94	34000	39500	27500	31500	명가공인 053-585-0580
호산동	삼성한국형	1709	59.67	24000	27000	17000	19000	파랑새공인 053-586-3333
			84.91	31000	35000	23500	26500	
경단동	유성청구	1493	35.10	9000	10000	6000	7200	광역부동산 053-383-9911
			47.49	12000	14000	8800	10000	

계재순서

▶대구 달성군·동·수성·중구, 경북 경산·경주시

▶대구 남·달서·북·서구, 경북 구미·김천시·울진군

▶대구 달성군·동·수성·중구, 경북 포항시

▶대구 남·달서·북·서구, 경북 문경·상주·안동·영주·영천시·칠곡군

읍면동	아파트명	층수	㎡	매매가	매매상한	전세하한	전세상한	연락처
		구수	(전용면적)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단위: 만원)	
고성동2가	고성	425	52.53	13500	15000	8300	9300	공정공인 053-355-7383
	동화힐리더타운	451	59.92	17000	19000	11500	13000	
관음동	칠곡화동타운	768	75.16	22000	25000	17000	19500	동화공인 053-324-0049
	칠곡한양2	1354	84.70	24500	28000	20500	23500	새대공인 053-326-1188
구암동	그린빌3차	1389	59.96	16000	18000	13000	14500	그린4단지공인 053-314-2211
	그린빌4차	900	49.71	15000	17000	13000	15000	그랜드공인 053-323-0100
국우동	부영3차	644	53.11	14500	15800	13300	14500	코리안랜드 053-322-0808
	칠곡미래타운	720	59.83	17000	19500	16000	18500	동서공인 053-321-0031
대천동	대천e-편한세상	527	60.22	17500	19500	15500	17500	그랜드공인 053-323-0100
	대천뜨린채	736	81.16	26000	29000	24000	27000	청아람밸리부동산 053-327-0102
동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1단지	775	84.94	21000	24000	18000	20500	우주공인 053-956-3800
	중공그린빌8	1282	59.70	17000	19500	15500	17500	초록공인 053-327-2600
동천동	부영2단지	1194	59.85	21000	24000	18500	21500	영남네오빌공인 053-313-5002
	칠곡2영남타운	974	81.17	31000	35000	27000	31000	초록공인 053-313-5002
매천동	매천휴먼시아	928	84.85	39000	45000	31000	36000	매천휴먼시아공인 053-311-6100
	복현대백맨션	450	124.84	60000	69000	43000	50000	신보성공인 053-381-9911
복현동	복현보성타운	419	59.98	15000	17000	12000	13500	신호공인 053-382-2578
	복현블루밍 브라운스톤명문세개	788	59.94	19500	22500	16000	18500	대림부동산 053-382-0067
산격동	복현우방타운	294	85.00	37000	42500	28500	32500	대림부동산 053-352-5252
	복현푸르지오	1199	125.10	53000	61000	34500	40000	대베스트공인 053-359-0099
서변동	대양아너스북현	462	85.00	25500	29500	23500	27000	엘리움One 053-352-5252
	산격대우	1702	59.98	26000	29500	20000	22500	엘리움One 053-352-5252
읍내동	대우아너스북현	462	84.95	34000	39000	23500	27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산격대우	1702	59.87	26000	29500	20000	225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칠성동2가	칠성동 코오롱하늘채	464	84.93	33500	38500	26500	30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칠성1차푸르지오(2-2)	700	84.96	33500	38500	26500	30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침산동	침산동2차상용에가	657	59.99	20000	22500	15000	17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침산쌍용	419	84.93	30000	34000	23500	27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내당동	내당화성2	488	75.63	41000	46000	33000	38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내당화성1	488	84.94	47500	54000	38500	44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비산동	비산화성1	372	59.84	25000	29000	22000	25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비산화성2	372	84.92	35000	40000	28000	32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동	화정화성1	392	84.93	32000	37000	24000	27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화성2	392	106.38	66000	75000	47000	53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팔달동	팔달화성1	495	59.72	16500	19000	13000	15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팔달화성2	495	84.78	23500	26500	20000	23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동	화정화성1	392	59.97	17500	20000	16000	175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화성2	392	84.93	24000	27500	19000	21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동	화정화성1	392	36.18	8800	10000	8300	92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화성2	392	59.92	14000	16000	13500	15000	대림부동산 053-313-9600
화정동	화정화성1	392	59.98	15000	17000	1250		

“대구 주택사업 활발...이젠 집값 안정 유지해야”

매일 탐 리더스 아카데미 지상 강연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구는 최근 도시경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일만 남았어요. 이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내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6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송 이사는 “수도권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지만, 대구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공급 물량이 정말 많았다”며 “집값이 너무 내리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다. 서울처럼 계속 시장을 강제해선 안 되고, 서울과 지방 도시는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벌어진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두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주택 문제는 정치인들이 할 게 아니라 전문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가 6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 강연을 하고 있다.

임경희 매일탐리더스아카데미 디지털국장

했다.

송 이사는 “과거 미분양이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보유 주택 개수에서 빼주겠다’고 했고, 임대 사업을 권장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샀던 것도 다주택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고, 임대사업은 죄악시되고 있다”고 비

집값 큰 폭 하락 땀 국민 어려움 겪어 서울처럼 계속 시장 강제해선 안 돼 정권 따라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어 ‘내년까지 기다려 보겠다’ 거래 미워

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에 가 보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내년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는 걸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를 꼽았다. 은행의 고금리 저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다.

송 이사는 “1996년도 사회생활 할 때 46만원짜리 3년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면 2천만원씩 되는 목돈을 받았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적금을 들지 않는다”며 “옛날에는 이자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고, 월급만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없

때문에 우리 사회문화가 ‘재테크 문화’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했더니 ‘팔아서 버는 돈을 은행에 넣어야 하느냐, 주식에 넣어야 하느냐’는 현실적 이야기를 들었다”며 “부동산을 팔아서 번 돈을 다시 부동산에 넣어야 할 바에는 안 팔겠다는 것인데, 들어보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송 이사는 “과거에 우리는 집을 사는 걸로 만족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가치로 두고 있다”고 우려하며 스스로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집값이 좀 올랐다가 떨어질 듯해서 팔았는데, 잔금을 받을 때 집값이 5천만원가량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사셨던 분이 ‘집을 깨끗하게 써주셔서 고맙다. 집이 너무 느낌이 좋았다’며 ‘빠달라고 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집을 경제적 가치 개념으로 봤고, 그분은 가족이 살 행복한 집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집값은 지금 5억원 정도는 더 올라와 있다. 결국은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면 더 좋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낙강시조문학회 정기총회·낙강 54호 출판기념회 낙강시조문학회(회장 고영환)는 4일 대구문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낙강 54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낙강시조문학회 제27대 신임 회장으로 황우연 시인이 선출됐다. 제8회 낙강문학상(수상자 채명호)과 낙강신인상(수상자 최근영) 시상식도 했다.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경산시에 성금 1100만원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자치회장 최종택) 회원들은 6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천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0명 회원이 11월 한 달 동안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다.



수성중앙새마을금고, 수성구에 성금 480만원 대구 수성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정경관)는 3일 사회공헌사업의 복지사업비로 성금 480만원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수성구청은 전달받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보 프로젝트 ‘비행기타고’ 순항

경북도·매일신문 11개 시·군 진행 시민홍보단 참여 플래시몹 선보여

경상북도와 매일신문이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보 프로젝트 ‘비행기타고’가 순항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민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향후 대한민국 교통과 경제의 거점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미지를 쉽고 친숙하게 홍보, 긍정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의도다.

‘비행기타고’ 프로젝트는 11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간결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신공항 홍보용 음악과 안무를 제작, 플래시몹 서포터스들이 지역의 주요 장소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촬영한 플래시몹 영상은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편집, 제작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간다.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진행된 행사에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보 프로젝트인 ‘비행기타고’ 행사가 신공항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는 200여 명의 시민홍보단이 현장에 참여해 플래시몹 공연에 함께 어울렸다. 5일 경주, 포항에서 있는 행사에도 300여 명의 시민홍보단이 신공항의 성공을 함께 기원했다. 3주 차 프로젝트는 11일 고령과 청도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이번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병행해 대구경

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신공항을 알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찬우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비행기타고’ 행사는 시도민들이 신공항의 가치와 자부심을 공유하고 신공항을 매개로 화합,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aeil.com



대구은행 ‘사랑의 김장나눔’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7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별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1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DGB대구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행봉사단과 11월 최종 합격한 신임 행원 등 약 50여명과 적십자 봉사원 및 RCY 단원이 철저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참여했다.

이런 아침부터 준비한 9천900kg의 김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외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 990가구에 10kg씩 전달할 예정이다. 김윤기 기자



대구미협, 메타버스 플랫폼 추진 RED CUBE 엔터테인먼트와 협약

대구미협(회장 이정찬·왼쪽)과 RED CUBE 엔터테인먼트(대표 정영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 개발 협약체결을 통해 미술협회 회원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웃사랑 후원물 의료용 온열매트 50개 (2,250만원 상당) (주)이메이지

대구미협, 메타버스 플랫폼 추진 RED CUBE 엔터테인먼트와 협약

이메이지, 온열매트 기탁 달서구에 2천250만원 상당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3일 ㈜이메이지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2천250만원 상당의 온열매트 5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J&J 테니스센터 정일영 대표 안동시에 성금 2천만원 기탁

서울에서 실내테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영 J&J 대표가 2일 안동시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받은 성금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안동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된다.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문경시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문경 지역을 대상으로 ‘가뭄 대비 나눔지하수사업’을 시행하고 최근 문경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나눔지하수사업은 전국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 지하수 관정의 실태 조사와 진단·보수를 실시, 가뭄에 대비하는 지역 맞춤형 물 복지 사업이다.

동화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전경환 씨 영정 사진 ‘인연’

형제·친구로 49제 잇따라 치러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전경환 전 새마을중앙회장의 영정 사진이 49제를 앞두고 대구 동화사 통일대전 영단에 나란히 놓여 화제다.

청도 용천사 주지 지거 스님은 7일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전경환 전 새마을중앙회장 등 이 세 분이 각각 형제와 친구로 사바세계에 오셨다가, 또다시 손잡고 소풍길을 떠나셨다. 인연 따라 함께 왔다가 함께 떠나는 외롭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동화사 통일대전 영단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노라니, 이 기막힌 인연의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지거 스님은 “전 전 대통령이 별세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서울 연희동에서 전 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동화사에 모셔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경환 전 새마을중앙회장의 영가. 지거 스님 제공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갈 때도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부음을 들었다”고 했다.

전경환 전 회장의 49제를 하루 앞둔 이날 세 사람의 영정 사진이 놓인 통일대전 영단 사진과 관련, 지거 스님은 “전 전 회장에 이어 닷새 뒤면 노 전 대통령, 또 그 한 달쯤 뒤면 전 전 대통령의 49제

가 치러진다. 그때가 되면 세 사람의 영가도 통일대전 법당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1942년생인 전 전 회장이 11세 위인 형 전 대통령보다 33일 앞선 10월 21일, 노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전 전 대통령은 11월 23일 각각 세상을 떠났다.

이통원 기자 tong@maeil.com



지택, 휴대폰 살균기 기탁 김천시에 1억2천만원 상당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생산 기업 지택(대표 유해규)은 7일 초고속 휴대폰 살균기 60대(1억2천만원 상당)를 김천시에 기탁했다. 지택이 기탁한 살균기는 지택 계열사인 한국전광(주)의 생산품으로 강력한 자외선을 이용해 7초 이내에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을 내·외부까지 99% 이상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이다.

유해규 지택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한 요즘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휴대폰 소독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maeil.com

평생 모은 재산 11억여원 성주군에 기부한 할머니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박자연 씨 토지·건물·미술 소장품 등 기탁 서울서 식당 운영으로 자수성가 "내 고향 위해 작은 기여 하고파"



박자연 씨는 6일 자신 소유 토지, 건물, 미술 소장품 등 전 재산을 성주군에 기부했다.

가천면 용사리가 고향인 박 씨는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 식당 운영으로 자수성가했다.

이때 독립운동가 심산 김장숙 선생, 이상희 전 내무부 장관 등과 인연도 맺었다. 1989~1991년 서울 한별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 고향 용사리에 머물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전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연말에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를 만들어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잊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식에는 용사리와 서울 등지에서 온 박 씨의 지인들이 참석했고,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해 기부자의 뜻을 기렸다.

이영목 기자 hello@imaeil.com

SM그룹 '제58회 무역의 날' 포상 3관왕 차지

천만불 수출의 탑·은탑산업훈장 박기훈 SM상선 대표 '산업포장'



박기훈(왼쪽) SM상선 대표와 김기호 SM스틸 대표, SM그룹 제공

SM그룹(회장 우오현)이 6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58회 무역의 날' 포상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과 '은탑산업훈장', 수출업체 종사자 포상(산업포장 수상) 등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박기훈 SM상선 대표이사는 이날 국내 수출물류기업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업체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 기업들이 배편을 구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SM상선이 컨테이너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물류난 해소와 국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여됐다.

박기훈 대표는 "내년에도 물류 공급망 전방이 불투명하지만, 국적 원양선으로 수출이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으로 수출화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SM그룹 제조 부문 계열사인 SM스틸

(대표 김기호)는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호 SM스틸 사장은 소재·부품·장비 수입 대체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SM스틸은 2020년 6월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스테인리스 후판공장을 준공하고, 그해 7월부터 국내 및 해외의 고객들에게 고품질 스테인리스 후판을 공급해왔다.

김기호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합심해 고품질, 고사양의 스테인리스 후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포항시 '경북 에너지대상' 공공 부문 대상 수상

최우수상 안동·예천 우수상 문경·의성 우수기업·개인 등 총 25명 도지사 표창

경북 포항시가 6일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았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은 안동시와 예천군, 우수상은 문경시와 의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체 분야 우수기업 5개 상패, 우수기업 5개 상장, 개인 표창으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 부문 대상은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

고 고효율 기기 교체, 설비 최적화 등 에너지효율 개선 실천이 돋보인 풍산 안강사업장(대표 주수석)에 돌아갔다.

또 최우수상은 한남전기통신공사(대표 이승재), SK실트론(대표 장용호), 우수상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주완), 금호엔지니어링(대표 이규락)이 공동 수상했다. 도지사 개인표창은 기업체 관계자 10명과 시군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는 ▷코오롱플라스틱 김진섭 수석 ▷조선선재 김경호 선임 ▷LIG넥스원 김승희 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임대욱 파트장 ▷세한에너지 강성길 부장 ▷포스코 박용준 부장 ▷경산현대타운 장영근 과장 ▷GS E&R 구미발전처 김명진 차장 ▷다이아지아에어가스 이주석 파트장 ▷경한 박재훈 과장 ▷포항시 공업8 김현기 ▷문경시 공업8 권현석 ▷의성군 세무6 신창섭 ▷영덕군 행정7 김미성 ▷봉화군 시설8



'2021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포항시가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항시 제공

권하민 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청정에너지와 배터리(ESS), 수소에너지, 미래 원자력을 활용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기반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박영택 기자 pyc@imaeil.com

안동소방서 권준근·황중욱 소방사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 인명 구조

경북 안동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2명의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 5분쯤 안동시 송현동 송옥삼거리 부근에서 퇴근 중이던 옥동119안전센터 소속 권준근·황중욱 소방사는 차량 2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현장에서 두 소방대원은 119상황실로 교통사고 상황을 접수했다. 이후 전도된 차량에 올라가 내부 확인 후 탑승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또 이들은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도 펼쳤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들에 따르면 통행량이



권준근 소방사 황중욱 소방사

많고 어두운 현장 특성상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두 대원의 활약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행에 대해 두 소방사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말을 아꼈다. 최원호 안동소방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동료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김영진 기자 solve@imaeil.com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수상작 도예가 문화재청장상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가 이상욱 송하요 도예연구소 대표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우 씨의 출품작인 현무광 트임 다기세트 '꽃자리'는 흑토에 분청 인화문 기법으로 제작했으며, 전통적인 차 도구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단아함을 살리면서도 소품을 추가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제56회 전국기예대회 도자기 부문 은메달, 제39·40회 대구공예품대전 대상, 제50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0년 K-Ribbon(우수문화상품) 우수공예품, 2020년 백년소공인에 선정됐다.

우 씨는 "항상 작업실이라는 휴 놀이터에서 설렘과 기대를 품은 행복한 도예가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권두혁 영남대병원 신경과 교수 신경과학회 2년 연속 우수 발표상



권두혁 영남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달 13, 14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두통의 유병률과 특징'을 연구해 두통이 코로나19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증상이자 코로나19의 첫 증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대구 지역 4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각 기관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확진받은 1천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자 중 두통을 포함한 다른 몸의 이상 증세를 보였던 환자는 826명으로 그중 91명은 두통이 코로나19 감염의 첫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수면연구학회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JSM(Journal of Sleep Medicine)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윤조 기자 hanyunjo@imaeil.com

배지숙 대구시의원 '국회 자살예방대상' 관련 조례 제정 우수 지방의회 부문 수상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이 7일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국회 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배 시의원은 '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예방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점과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근우 기자

인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비서실장 이홍천 ▷산학협력단장 겸 기업협업센터장 겸 공동활용장비센터장 반상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주수인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김영호·서원례·이신근 씨 선정

경북 구미시는 7일 2021년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에 김영호(사)중소기업협회회장·서원례 구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이신근 구미시 검도팀 감독을 각각 선정했다.

김영호(56)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 간 상호 교류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혁신 중소기업인(썬영진하이텍 대표)로서 수출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또 지역 인재 육성 및 장학금 기탁,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쳤다.

서원례(59) 회장은 학대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여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해외 구호 봉사활동과 행복마을 만들기 등 활동을 해왔다.

이신근(61) 감독은 전국대회에서 구미시 검도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



김영호 씨 서원례 씨 이신근 씨

하고,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국내 체육 발전과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은 1996년 구미시민상과 구미문화상, 선산군민상을 통합했다.

지난해까지 199명의 모범시민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이달 중 할 계획이다.

전병용 기자 yong126@imaeil.com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력 11월 5일) 더서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남들은 의심 하더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남 눈치는 보지 말고요. ▶48년생 시기, 질투가 있더라도 한 귀로 흘리고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하고 넘겨 보세요. ▶60년생 무슨 일이든 적정선이 있 배라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 합니다. ▶73년생 오전에 정신없이 바빴다면 오후는 한가하네요. 여가 시간을 꼭 가지세요. ▶84년생 초심을 잃으면 목표까지 흐려진답니다.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 ▶37년생 무슨 일든 내가 자제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49년생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 해주세요. 내 일은 끝까지 도맡아서 처리해 보세요. ▶61년생 뭐든 배라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 합니다. ▶73년생 오전에 정신없이 바빴다면 오후는 한가하네요. 여가 시간을 꼭 가지세요. ▶85년생 부담스러운 일이라 느껴질 수 있으나 나를 성질시키는 일이 될 테니 거절하지 마세요.	범 ▶38년생 큰 소리 뽀뽀, 허세는 자제해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50년생 타인의 조언에도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나를 믿어야 합니다. ▶62년생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적 이라고 생각하고 남기길 바랍니다. ▶74년생 멀리서부터 좋은 운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크게 움직이면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86년생 걱정, 고민이었던 일이 모두 해결되는 하루네요. 두 다리 쪽 뽀뽀를 청해요.	토끼 ▶39년생 성취감은 잠시, 마음껏 누리려는 것도 좋지만 얼른 현실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51년생 지난 일이 미련을 두더라도 돌이킬 수 없답니다. 현재와 미래에 더 충실해 보세요. ▶63년생 법다 달릴 준비 되었나요? 주변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더 성장시켜 보세요. ▶75년생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은 결과를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87년생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일이 쌓일 수 있으니 허세는 자제하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용 ▶40년생 다소 이기적으로 느껴져도 내 일에만 충실해 보세요. 자랑해도 좋습니다. ▶53년생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어도 결국 해답은 있으니 천천히 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나의 페이스에 맞게 끝까지 해주세요. ▶89년생 새로운 것을 찾아보세요. 지켜왔던 일보다라도 빛 좋은 개살구니 포기해요.	말 ▶42년생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54년생 남들 잘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더 신경 쓰길 바랍니다. ▶67년생 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치른 대가를 나에게도 돌려주세요. ▶81년생 혼자 한다는 억울함이 들더라도 더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9년생 나에게 무리가 되는 일이란 아무리 좋은 일이라든 빛 좋은 개살구니 포기해요.	양 ▶43년생 중요한 일은 꼭 문서로 남겨주세요. 증거를 남겨둬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55년생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더 신경 쓰길 바랍니다. ▶67년생 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치른 대가를 나에게도 돌려주세요. ▶81년생 혼자 한다는 억울함이 들더라도 더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9년생 나에게 무리가 되는 일이란 아무리 좋은 일이라든 빛 좋은 개살구니 포기해요.	원숭이 ▶44년생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애써 많은 시간과 돈, 관심을 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6년생 친한 사이라도 트러블이 날 수 있죠. 서로 이해한다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68년생 돈독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솔직한 대화를 하세요. ▶80년생 나를 위한 일이라면 짚짜게 도전하세요. ▶91년생 오늘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닭 ▶45년생 휴식도 일 중 하나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즐겨 보세요. ▶57년생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 기운의 파워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69년생 본래를 보여주세요. ▶81년생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 세상의 기준을 나로 잡아도 좋겠습니. ▶93년생 표정 관리가 중요한 하루네요. 괜히 시비에 걸리지 않게 유념 하길 바랍니다.	개 ▶46년생 오늘은 모든 행운이 내 편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8년생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좋지 않으니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70년생 계획이 엇나가게 돼 몸은 피곤하더라도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세요. ▶82년생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질투에서 그치지 말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3년생 동적인 모습은 좋지 않아요. 이 정도 문혀 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돼지 ▶47년생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 봐야 합니다. ▶59년생 제3자의 비켜달라 해야 합니다. 단 돌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71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 ▶83년생 주변 사람에 안부 연락도 좋겠습니. ▶88년생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보면 돈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95년생 내일은 내일의 하루가 또 시작되기 마련이죠.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	--	---	---	---	--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주하는 풍경



EBS1 '세계테마기행' 오후 8시 40분

8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EBS1 TV '세계테마기행'에서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찾아가는...

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갖 지는 밥으로 만든 플로프와 카자흐스탄 국민 음식, 닭고기 사슬릭을 맛본다...

cpbc 대구 cpbc 뉴스 오후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오늘의 역사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 피살

비틀스 창립 멤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존 레논이 뉴욕 맨해튼 자신의 집 앞에서 한 정신이상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1940년 영국에서 태어난 레논은 폴 매카트니와 더불어 '로큰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로 평가된다.

TV 프로그램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TBC/SBS, EBS1.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KBS 053)757-7321 MBC 053)740-9500 TBC 053)760-2000 EBS1 1588-1580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5일간 예보' (5-day forecast), and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키아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569-5995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including categories like 스포츠, 영화·경제, 드라마, etc.

Medical advertisement for '심야약국' (Night Pharmacy)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작명전문' (Professional Naming)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contact details.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6년 만에 와준 아들, 엄마 옆에 꼭 붙어서 행복하자”

박수연(34)·구동규(38·대구 달서구 도원동) 부부 첫째 아들 구도운(태명: 똑따·3.9kg) 2021년 10월 1일 출생



우리 똑따는요, 저희 부부에게 6년 만에 찾아온 세상 예쁜 아들이예요. 난임 부부로 인공수정 네 번 실패 후 몸과 마음이 힘들 대로 힘들어 있을 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시험관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도 예쁜 우리 똑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가? 정말 이름처럼 똑똑하게 엄마한테 잘 붙어 있어 줬어요. 너무 붙어서 'big baby!'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몸무게가 4kg은 무조건 넘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정일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나온 우리 똑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3.96kg으로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똑따, 아니 이전 도운이라는 멋진 이름이 생겼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에도 가꿈 배 속에 아직 있나 싶은 느낌도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도운이를 보니 진짜 세상에 태어났구나 싶으면서도 매일매일 일안보고 싶네요. 출산 후 병원 입원 기간 동안 계속 계속 보고 싶은데 코로나19로 면회시간이 줄어 자주 볼 수 없었던 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엄마 옆에 꼭 붙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우리한테 와 준 도운아!

엄마의 작은 배 속에서 자란다고 고생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고생했어. 이제 우리 세 가족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자. 사랑해 아들!

자료 제공: 여성아이병원(1877-6622)



달서구, 부모 대상 결혼 공감 토크 ‘자녀 결혼 이해하기’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달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혼 공감 토크 ‘자녀 결혼 이해하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 공감 토크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의 ‘우리 애 결혼 시키기 프로젝트’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식전 공연으로 현악4중주의 결혼 테마곡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달서구는 비혼·만혼 추세로 결혼 화두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화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 공감 토크장을 마련하게 됐다.

이호선 교수는 “먼저 MZ 및 자녀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혼에 대해 소통하며 결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번 강연으로 자녀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내일의 희망이 되어줄 결혼을 이야기하길 기대한다. 또한 결혼하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달서구가 되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maeil.com

우리 결혼합니다 배성현♥안주영

2021년 12월 19일 낮 12시 문경 가야웨딩홀 2층 행복홀



To 사랑하는 나의 신부 주영이에게
2021년 4월 11일 우리의 첫 만남 기억하니? 마스크를 벗은 너의 모습을 본 순간 난 너에게 반해버렸지.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고 자세히 보아도 예쁜 너에게. 봄바람이 부는 쌀쌀한 저녁, 난 너에게 담요를 건넸지. 너는 오빠도 춥다며 담요를 함께 덮었지. 그렇게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한 우리 사랑은 시작되었지. 너라서 우리 사랑을 약속할게. 너라서 우리 사랑을 지킬게. 평생 너의 옆에서 너를 사랑하는 남자로 살아갈게.

우리의 2세 하늘과 별이 생겨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 주영아!

파란 가을 하늘보다 더 파랗게, 핑크볼리보다 더 핫핑크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자.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From 성현 오빠
자료 제공: (주)고구마/고구마웨딩 1670-5456

화촉



▶강용철(전 상주시 행정지원국장)·윤혜화 씨 아들 제모(문경시 공무원) 군, 김필봉·이진천 씨 차녀 은주(상주 상지여고 교사) 양. 12월 18일(토) 오후 1시 상주 마리앙스컨벤션 마리 앙스홀(경북 상주시 삼백로 343).



▶김도성·심신숙 씨 아들 현욱 군, 한시영·김정아 씨 딸 송훈 양. 12월 11일(토) 오후 1시 유성컨벤션웨딩 그랜드홀(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77).

공동 기획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김영현(37)·양민호(37·대구 달서구 옥포읍) 부부 둘째 아들 소복이(3.6kg) 11월 15일 출생.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제갈경아(34)·이용석(39·대구 달서구 화원읍) 부부 둘째 딸 따봉이(2.6kg) 11월 20일 출생. “천사처럼 찾아온 공주♥ 행복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언니랑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자.”



▶박경민(32)·이대희(34·경북 영천시 금호읍) 부부 첫째 딸 나무(3.4kg) 11월 13일 출생. “우리 나무, 이제는 이아운. 엄마 아빠에게 와주어서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많이 사랑한다.”



▶권혜진(39)·오준열(33·대구 달서구 대명천) 부부 첫째 아들 마로(3.4kg) 11월 20일 출생. “마로야, 열 달 동안 쪼매난 배 속에서 고생 많았지? 엄마랑 한 몸에서 동고동락하며 잘 지내 왔으니 세상 밖으로 나오는 한 지붕 아래서 아빠랑 딸리 누나랑 사이 좋게 재밌게 건강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권오미(31)·김종욱(35·대구 달서구 성당동) 부부 첫째 딸 열매(3.4kg) 11월 19일 출생. “하루하루 포동포동해져 가는 우리 공주님. 앞으로 엄마 아빠가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신현정(37)·조재오(39·대구 북구 연경동) 부부 첫째 딸 소뜰(3.3kg) 11월 17일 출생.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엄마 아빠는 너의 팬이 되어 평생 응원할게. 나의 우주 소뜰♥”



▶김민지(29)·서인석(29·대구 달서구 옥포읍) 부부 첫째 딸 소금이(3.2kg) 11월 19일 출생. “우리 소금이,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웃음이 많은 행복한 아이로 자라렴. 사랑해 내 딸, 우리 아가.”



▶차지은(32)·오종규(34·대구 남구 대명동) 부부 둘째 아들 복주(3.6kg) 11월 15일 출생. “태어날 때까지 너무 기다린 우리 복주, 건강하게 나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이현주(32)·유재형(35·대구 동구 신천동) 부부 첫째 아들 또또(3.1kg) 11월 18일 출생. “우리에게 로또처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빠 엄마랑 오래오래 즐겁게 살자! 또또야 사랑해.”



▶이선희(35)·이주호(41·대구 달서구 상인동) 부부 둘째 딸 또리(2.6kg) 11월 19일 출생. “또리아, 만나서 반갑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 네 식구 행복하자.”



▶이영주(33)·이영민(34·대구 달서구 대곡동) 부부 첫째 아들 뽀미(3.7kg) 11월 15일 출생.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



▶문신애(34)·배현규(34·경북 경산시 삼북동) 부부 둘째 딸 꼬오(4kg) 11월 16일 출생. “엄마 아빠에게 와준 두 번째 보물,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자. 사랑해.”



자료 제공: 여성아이병원(1877-6622)

자료 제공: 신세계여성병원(053-954-7771)



모두가 선택하는 전광판 광고

광고 기간과 영상 변경의 자유로움!
기존 광고 보다 비용대비 높은 효과!
다이나믹한 영상 송출로 시각 효과 극대화!
지속적인 영상 광고로 소비자 관심도 급상승!

(주)엔앤피미디어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15, 2F

문의 전화 010 . 9359 . 7058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취재현장



김병훈 서울뉴스부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아이큐(IQ) 430에 측지법과 공중 부양이 가능하다. 고향은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진 하늘궁이고 눈빛만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누구든 하루 3번 허경영을 외치면 원하는 바가 이뤄진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고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현재 허 후보가 '양강'에 이어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허 후보는 지난달 24일 여론조사 업체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이 전국 1천18명

에게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 양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대선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7.2%)에 이어 4.7%의 지지율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제3세대 공조를 논의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3.5%)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3%)를 보란 듯이 제압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의 발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28일 폴리뉴스의 의뢰로 전국 1천10명에게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허 후보는 3.3%의 지지율로 3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런 기세라면 허 후보의 TV 토론회 출연도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르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는 TV 토론회 참석이 의무다.

허경영 현상의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지지 후보 3위는 허 후보(5.7%)인 반면 여성은 심상정 후보(3.9%)였다. 연령별 허 후보 지지율은 만 18세~만 20대(8.8%), 만 30대(7.0%), 만 40대(3.7%), 만 50대(3.7%) 만 60세 이상(2.5%) 순이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여성(1.8%)보다 남성(4.7%), 만 18세~만 20대(5.0%) 및 만 30대(3.5%) 지지가 두드러졌다.

허 후보를 향한 2030 남성들의 지지는 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돌풍과 닮은 듯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원의 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율 3위까지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준석 당 대표가 당선되고, 홍준표 의원이 대선 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에 비춰 보면, 허 후보를 향한 지지도 실체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선 돌풍이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 지지였다면, 허 후보를 향한 지지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냉소적 지지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여의도 정치권에선 허 후보의 약진을 두고 '얼마나 짝을 사람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양강 선대위의 인선 잡음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쇠신 선대위 1호 인자로 30대 워킹맘인 조동연 씨를 영입했다. 자신의 지지 취약층인 2030세대 및 여성 표심을 겨냥한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조 씨는 이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인선 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뒤질세라 윤석열 캠프도 여성 혐오와 독재 찬양으로 논란을 일으킨 함익병 씨를 영입했다가 내정 7시간 만에 철퇴했다.

바이하르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의 대선 TV 토론회 데뷔가 일박하고야 말았다. 그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못났느냐'를 두고 싸우는 대선에 측지법과 공중 부양이 더해질 참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인구'와 '일자리'

경제 칼럼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사회적 인구 이동 강화·출산율 증대 지방 소멸 시대 '두 지역 살기' 운동

고용 유연 안정성 일자리 정책 핵심 정규·비정규직, 연공 임금체계 개편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이 밝아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되고 있지만 코로나 변종 발생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에 있고, 6월에는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구조 전환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은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 대

전환의 원년이 되면서, 국가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지역 간·노사 간·세대 간·계층 간 갈등과 공정의 실현 문제, 4차 산업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 통합과 소외계층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인구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 화두이자 핵심 키워드(Key word)이다. 두 가지 쟁점 문제는 구조적 특성을 따는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근간이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요 과제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인구 정책은 사회적 인구 증대에, 일자리 정책은 고용 유연 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구 이동성 강화에 방향을 두면서 출산율 증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문호 개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방 소멸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회복을 강화하는 동태적 사회 인구 정책인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두 지역 살기의 핵심 정책은 '복수 주소제' 도입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직주불일치 근로자들이 있는 지자체 간 복수주소제를 우선 인정해 지방세 배분의 원칙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세액공제를 연계해 고향 이주 희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거소나 거주소로 등록할 경우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는 정책도 도입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 유연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경직적인 이중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직결된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 증가하면 임금이 15% 증가하는데 이는 OECD 28개 국가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연공 임금은 고령층에게는 조기 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청년 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게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및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

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청년 고용, 고령자 고용과 직결된 것으로 전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인구 정책과 일자리 고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어떤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더 어렵게 했고,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을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1가구 2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과 부정적 효과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역효과를 초래하는 정책의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를 예방하고, 최악의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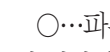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인구와 일자리 관련 사회경제적 기본 틀과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인구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每日 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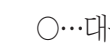
김경수



○...윤석열, 지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경우 관련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한 데 대해 "제가 집권하면 정보 공개할 것"이라고 역공. 공개할 것이 어디 그것뿐이겠소.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 "지금으로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 아닌 것 같다" 발언에 세계 증시와 유가, 가상화폐 일제히 급상승. 썩어도 준치라고 증상 가벼워도 오미크론은 코로나.



○...대구FC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 3위로 시즌 마무리, 강화된 조직력이다 스타플레이어 활약과 뜨거운 팬 열정이 비결. 이제 남은 건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인데 시간 더 걸 것 있나?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매일신문** www.imaail.com

발행인·편집인·인쇄인 이상택 **정창룡** **김교영** 신문국장 **이동관**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경북본사 054)855-17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대표팩스 053)255-8902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Original Book&Lyrics LUC PLAMONDON Music RICHARD COCCIANTE

NOTREDAME DE PARIS

FRENCH TOUR

노트르담드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

2021. 12. 10 ~ 12. 26 **KA** **계명아트센터** 문의 (주)파워포엠 053-422-4224 주최 대구 MBC 주관 (주)파워포엠 제작 mast enz 에매 리킷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

시각과 전망



최정암
서울지사장

32년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대구 시나 경상북도를 지방정부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중앙정부보다 더 밀접하게 지역민들의 생활과 연결돼 있는 행정기관을 우리는 '정부'가 아닌 '단체'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흥길동과 같은 운명이다.

헌법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물론 34년 전 우리 헌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도 완전 무지 수준. 그러다 보니 모든 자구 하나하나가 중앙 위주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치

업무를 담당할 시도 및 시군구를 어떻게 단계로 격하시킬 수 있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지방민들이 감히 정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우월 인식에서 나온 중앙집권적 결과물이다.

이렇다 보니 하위 법령들이 아무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지방분권 수준이 정비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함으로써 자치분권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지자체 및 다수 지방분권 운동가들의 바람은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지방분권을 우리의 국가 질서로 규정함으로써 입법·행정과 법령 등의 국정 운용 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핵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집권할 경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에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제 1987년 9차 헌법이 개정된 지 34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으로 전환하려면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이 배분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치분권의 핵심 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지방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이루는 조처들이 따라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89개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역의 근간인 지방대학도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태.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라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선 주자들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공약은 찾기 어렵다. 핵심 지지층들의 관심도 '정권 재창출'과 '정권 탈환'으로만 구분돼 있다. 그렇게 한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분권 개헌을 해야만 생활의 질이 나아질 단초가 제공된다.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지방분권 지원 조례와 분권협의회를 구성한 분권 선도 도시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불붙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社說

코로나 병상 부족·치명률 급등, 정부 팬데믹 2년 동안 뭘 했나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6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11월 21일 이전 1주일 확진자 수 대비 12월 1일 이전 1주일 사망자 수)은 1.46%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 같은 기준, 영국 치명률은 0.3%, 싱가포르 0.32%, 독일 0.6%, 일본은 0.94%를 기록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0.96%)은 물론 전 세계 평균(1.31%)도 우리보다 낮았다. 세계 주요국이 접종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뒤 '치명률'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증가한 것이다.

치명률은 각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 및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행하던 10월 초까지만 해도 0.5% 이하, 10월 15일 0.57%로 치명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하루 뒤인 11월 2일 1%를 넘어섰고 12월 초 현재는 1.5% 안팎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코로나 병상이 충분하며, 중증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 0시 기준, 전국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하는 환자는 1천12명이다. 최근 5주간(10월 31일~12월 4일) 병상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 환자는 29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는 감염병 전문병원 은 전무한 형편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꼭 필요한 코로나 대책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그레 놓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민간 병원에 코로나 전담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니 병원들은 초비상이라고 한다. 재정과 권한을 모두 쥔 정부가 제 할 일을 등한시하면서 거리 두기, 영업 제한, 민간 병원 옥죄기 등 국민에게 요구만 늘어놓는다.

가덕도신공항 예산 등 혈세 나눠 먹기 혈안인 국회의원들

정부가 구상한 내년도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제출안에 없었던 가덕도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가덕도 예산 편성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원안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가덕도 예산이 신공항건설추진단 운영사업 명목으로 국회에서 2억5천만 원 편성됐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통상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느닷없이 새로 예산을 추가했다.

가덕도 예산 등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76건, 9천400억 원이나 된다. 가덕도 예산을 비롯해 한전공대 개교 등 내년 양대 선거를 노린 선심성 예산들과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예산들이 수두룩하다. 의원들이 국민 혈세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구 예산을 쟁

긴 것은 몰염치하다.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때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했지만, 6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를 지역구에 마구 뿌려도 되는 썩듯돈처럼 여기는 구태는 여전하다.

내년 국가채무가 1천64조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엄격한 예산 심사로 낭비와 비효율을 가려내기커녕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까지 없어 정부 예산안보다 도리어 3조3천억 원을 증액했다. '쪽지예산'은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기 어렵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쓰이면 세금을 내고 싶은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 내 표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속셈으로 가득한 의원들의 눈에 띄는 국채무와 세금 내기에 힘겨워하는 국민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고 지방에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셔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 분위기가 그 전과는 영 판판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매수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어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의 올해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1천904건으로 지난해의 44%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부동산 불패' 수성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는 위축되는데 공급 폭탄이 쏟아지면서 대구에서는 대기업 아파트도 청약 미달되는 등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심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공급 물량 부담이 겹친 탓이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았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위축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지금 대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올해 8월 기준 대구에서는 180여 개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대구 옛 시가지는 거대한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집값은 너무 급격히 올라도 문제지만 많이 내려도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워낙 큰 데다 은행권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등 도미노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규제 정책을 지방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재고할 시점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먼저 국토부는 대구시와 동구가 거듭 요청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머뭇거리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들도 현실화된 부동산 시장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야고부
野鼓賦

"지금 바로 오늘이 평화로운 하루하루... 다시는 이 하루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압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고통과 슬픔도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대구에 22년을 살면서 대구형무소의 존재는 물론 순국하신 206분 열사의 유지를 알게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초겨울 날씨로 제법 쌀쌀했던 지난 4일 오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중앙무대. 대구의 한솔초등학교 6학년 권민수 군이 먼저 추모 편지를 낭독하고, 간격을 두어 경북대 4학년 이우민 학생이 추모 글을 읽었다.

그러는 동안 무대 앞에는 나들이객과 '물놀이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206인 진혼제'를 마련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상임대표 우대현)와 대구독립운동기

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찬바람 속에 귀를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진혼제를 보면서 권민수 군 편지처럼 '형이 일본의 채찍질에 노예처럼 일하다 하루하루 지옥 속에 신음했다'는 일제 때와 다른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또 이

이 평화로운 하루 일상

우민 학생의 고백같이 옛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투사가 206명이 나 되고 대구에 그들이 간했던 감옥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특히 옛 대구형무소 흑백 사진과 객과 '물놀이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206인 진혼제'를 마련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상임대표 우대현)와 대구독립운동기

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찬바람 속에 귀를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진혼제를 보면서 권민수 군 편지처럼 '형이 일본의 채찍질에 노예처럼 일하다 하루하루 지옥 속에 신음했다'는 일제 때와 다른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또 이

우민 학생의 고백같이 옛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투사가 206명이 나 되고 대구에 그들이 간했던 감옥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특히 옛 대구형무소 흑백 사진과 객과 '물놀이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206인 진혼제'를 마련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상임대표 우대현)와 대구독립운동기

정인열 논설위원 oxen@maeil.com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예천 사과

물 좋기로 소문난

醴泉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장자)

단술 예 샘천

예천 참기름

예천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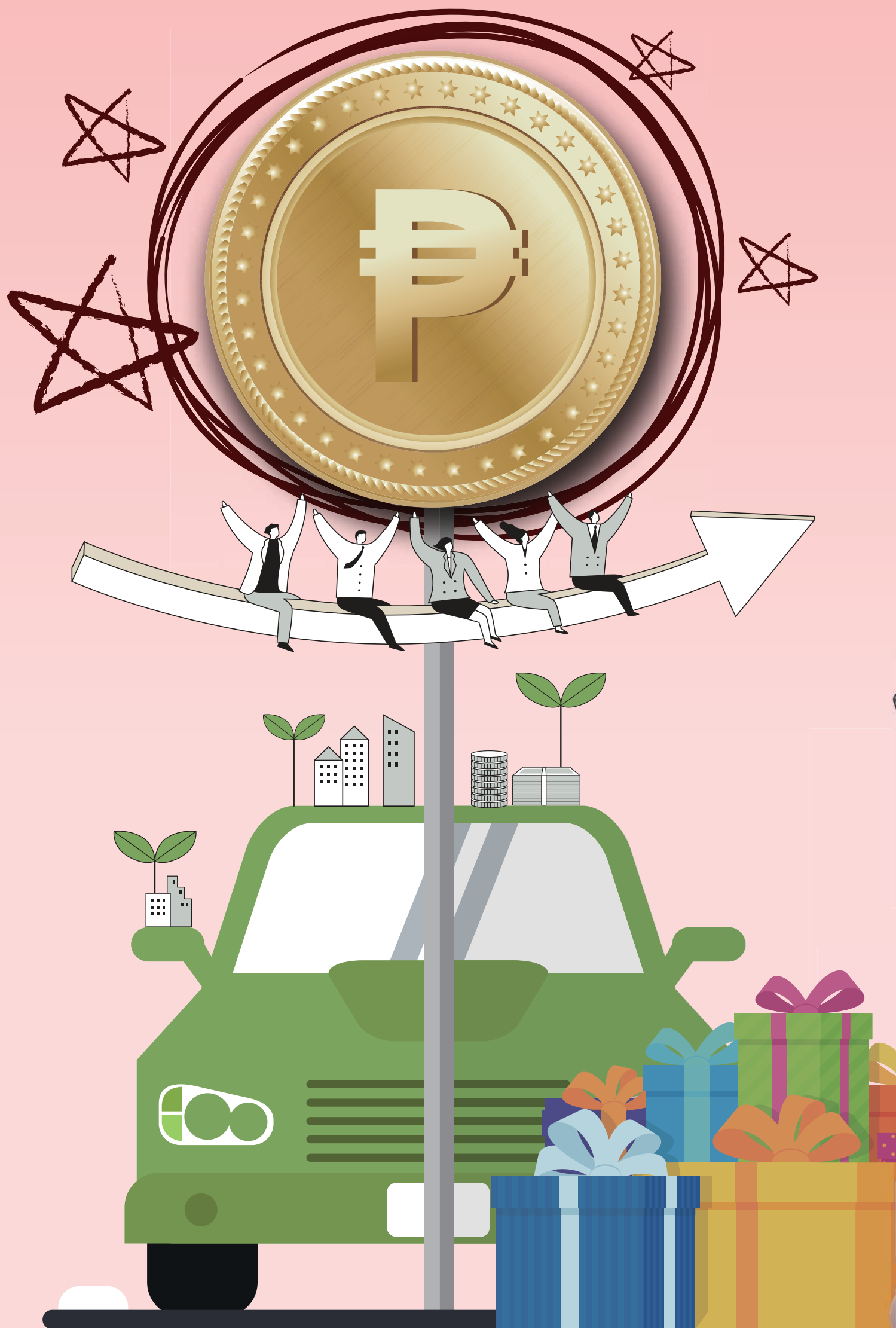
예천 한우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대구광역시 2022년 1월 시행 승용차요일제 가입하고 경품받자!



최신 Galaxy Tab
(3명)

스타벅스 기프티콘
(200명)



신규가입

2021. 12. 01 ~ 2021. 12. 31

가입방법

대구ID 앱 설치 후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참여대상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자

추첨일시

2022. 01. 02 (일), 10:00

당첨자 발표

2022. 01. 03 (월)

경 품

최신 Galaxy Tab(3명), 스타벅스 기프티콘 (200명)

경품수령

Galaxy Tab 당첨시 신분증 지참 후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방문 수령/스타벅스 기프티콘 당첨시 모바일 전송

문의처 : 053-803-4913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